부모회복학교(HOME MISSION MINISTRY SCHOOL)가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가정의 순기능 가정으로의 회복과 개인의 상처 회복을 중심으로

A THESIS-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ITY OF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HEECHANG JOH

MAY 2022

목차(CONTENT)

그림 및 표 목록(ILLUSTRATIONS)

그림(Figures)

표(Tables)

감사의 글

먼저 내 삶의 구원자, 주인이시며, 진정으로 좋은 아바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더 깊은 사랑과 선하심을 느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이 땅의 아버지 조옥성 장로님과 어머니 김옥주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0 년과 30 년 넘게 새벽기도로 저와 가족들을 중보해주신 두 분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역을 섬길 수 있었음을 고백 드립니다.

저에게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에 대한 통찰을 주시고, 좋은 스승되어 주신 신상언 선교사님과 낮은울타리의 한국, 미주본부 모든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주본부의 사역현장에서 건강한 자녀과 건강한 가정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동역해 온 박미주, 이효은, 강정미 전도사님과 각 지부 동역자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목회에 대한 통찰과 배움을 주신 한무리교회 박상돈 목사님과 모든 한무리 가족, 동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을 뿐 아니라 사역에 대한 깊은 공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도교수이자 멘토되어 주신 칼빈 최(Calvin Choi)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통찰력을 가지고 논문 Reader 로 섬겨 주시며 논문심사과정도 은혜와 감동이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 매튜 킴(Matthew Kim)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동반자, 동역자로 회복사역과 여러 사역현장에서 잘 동역하며 늘 사랑으로 지원해 준 아내 이지원과 소중한 딸 하린, 은결이, 장인, 장모님 모든 가족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좋은 스승 되어 주셨던 모든 분들과 사역가운데 함께하며 은혜를 나눈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땅에 건강한 자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기 위해 회복사역과 여러 사역현장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며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자들께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22 년 3 월

조 희 창

Abstract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HMMS (Home Mission Ministry School) in the Korean church. HMMS is designed to address emotional and spiritual wounds in families thereby transforming a dysfunctional family to a functional family.

The research outcome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ddressing and healing individual emotional wounds. Second, it verified that HMM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gaining a deep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ir marital and family relationships. Third, it verifi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ransforming a dysfunctional family to a functional family.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부모회복학교(HMMS, Home Mission Ministry School)가 실제적으로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로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와 개인의 상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효과 연구에 앞서 부모회복학교의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의 치유, 회복 사역들을 분석 및 비교해보고, 각 사역의 특징들과 각 사역이 가졌던 한계 및 부모회복학교와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 부모회복학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부모회복학교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Before-After)에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Ⅱ(Korea Family Strengths Scale Ⅱ)'와 '영적 가족 강점 척도', '정서적 건강을 진단하는 척도', '영적 성숙도 척도'와 더불어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 중 어디에 더 가까운 지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본인의 상처 정도에 대한 10점 척도를 활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사후 설문에서는 질적분석을 위해 10점 척도와 더불어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설문과 부모회복학교 평가질문을 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검증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처회복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번 효과연구를 통해 부모회복학교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상처회복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회복학교의 주요목적인 상처회복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두번째, 부모회복학교는 배우자와의 관계 부분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번째, 가족 건강성 척도를 통해서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10점 척도 및 그 이유 분석 및 종합 평가에 대한 질적 분석 등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변화(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주관식 응답 분석을 통해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76.9%의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부모회복학교가 긍정적 가족관계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회복학교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을 꼽는 질문에서 “강의”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직면기도”을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분석을 통해 회복사역 가운데 강의 이상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회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처음 참가자 사전, 사후 점수와 두번 이상(복수) 참가자의 사전, 사후 점수의 종합 비교를 통해 처음 참가자와 복수참가자의 차이와 반복할수록 가지게 되는 효과를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부모회복학교를 복수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좋은 변화가 있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연구는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에서 진행되어온 부모회복학교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부모회복학교는 상처입은 영혼과 역기능 가정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운데 각 교회와 사역현장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순기능 가정을 세워가는데 좋은 대안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 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가치관 혼란의 시대에 현대의 가족들은 갈수록 역기능화 되어가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역기능 가정의 문제는 이혼, 자살, 상처의 양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한인이민 사회가운데 이혼가정은 결혼가정대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혼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가족간 깨어진 관계 등으로 아파하는 역기능 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 천명당 이혼건수를 말하는 조이혼율은 1970 년 0.4 건이였는데 1990 년에는 1.1 건으로 증가했으며 2003 년 3.4 건으로 최고치를 보여주었고 2019 년은 2.2 건 이였다. 1970 년 대비 조이혼율은 5 배가 넘고, 1990 년보다도 두배가 더 높다. 또한 2016 년 OECD 평균 조이혼율인 1.9 명보다 높은 수치이다. [1] 한국 통계청의 2019 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9 년 이혼 건수는 11 만 800 건으로 전년대비 2,100 건이 늘어나면서 2%가 증가 했다. 혼인지속기간은 20 년 이상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 년 이하의 이혼이 21%를 차지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이미 청소년 시기 이상을 지냈을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고, 이혼가정의 다섯가정 중 한가정은 결혼하고 4 년이 안되어서 이혼을 한 것이다.

2019 년 혼인건수는 23 만 9,200 건으로 1970 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12 년 이후에 8 년 연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혼인의 감소도 계속

[1] 서울신문 2019 년 4 월 1 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02002001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혼기 연령의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도 있지만 이혼이 늘어나고 좋은 가정의 모델이 되는 순기능 가정 보다 역기능가정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이 혼인할 이유와 동기를 줄이고 있고, 이는 혼인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2012 년 기준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게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62.7%였었는데 2018 년 결과는 48.1%로 15.4%p 나 줄어들었다. 결혼을 하는 것 좋다라는 생각이 6 년 동안 급속도로 줄어든 것이다. [2]

여기에서 눈 여겨 볼 것은 2019 년 한해기준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가 약 46.3%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해 안에 약 10 가정이 결혼하면 그중 거의 반에 해당하는 4.6 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인구 1 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과 1 천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2019 년 조혼인율이 4.7 건인 것이 비해 조이혼율은 2.2 이다. 이혼한 가정은 물론이고,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이혼의 위기에 있거나 별거중인 가정 등을 포함한다면 역기능 가정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도 다르지 않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의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3]

> 요즘 미국의 가정의 정서적인 안정성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다. 이글을 쓰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뤄지는 결혼의 절반은 이혼으로 끝난다.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런바 바이블 벨트(Bible Belt)로 알려진 몇몇 주의 이혼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바나(George Barna)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전체인구의 이혼율을 상회한다고 한다.

---

[2]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80972
[3]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최종훈 역 (서울 : 두란노, 2016), 75

이러한 크리스천가정인가 아닌 가에 거의 상관없이 수없이 양산되고 있는 역기능 가정들은 부모와 더불어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상처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주변사람 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방해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더욱 많아지는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가 자살율이라 할 수 있다. 자살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상처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최극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9 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9 년 고의적 자해인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1 만 3799 명으로, 전년 대비 0.9%(129 명) 증가했다. 인구 10 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자살률)는 26.9 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전체 1 위에 해당된다. 국제 비교를 위해 고령화 정도 등 인구구조 요인을 제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이 24.6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3 명보다 두 배가 넘고, 전체 1 위를 기록했다. 2019 년 기준 10 대, 20 대, 30 대의 사망원인 1 위가 자살이고, 40 대, 50 대의 사망원인 2 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4]

지금까지 통계 등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하는 것과 역기능 가정 등으로 인한 상처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또한 이는 회복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이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될 때 이혼은 더욱 줄어들고, 자녀들도 건강한 자녀들로 세워질 것이다. 또한 역기능 가정으로 인한 상처도 줄어 들며 상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우울과 자살 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4] 한겨레신문 2020 년 9 월 22 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3144.html

이러한 부분을 감당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현장과 공동체는 바로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전역에 세워진 50,000 여개의 교회와 더불어 이민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6,000 여개의 이민교회[5]는 이러한 사역을 이루어 가야할 중요한 전진기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이러한 가정의 회복과 개인의 상처 회복을 돕는 사역은 많지 않다.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별히 한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지,정,의 세가지의 영역 모두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하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설교와 성경공부 중심으로 지적인 접근의 사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반면 상한감정과 상처를 회복하는 사역은 매우 드물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도 이부분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6]

>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역에는 열성적이지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둘을 조화시키는 일이야 말로 교회는 물론 리더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상처가 많은 성도의 경우 씨뿌리는 비유(마태복음 13:1~23, 마가복음 4:1-20, 누가복음 8:4~15) 에서와 같이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마태복음 13:5-7, 개역개정)

>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5] 크리스찬 투데이 2017 년 1 월 24 일. http://www.christiantoday.us/24398
[6]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최종훈 역 (서울 : 두란노, 2016), 65

>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the worries of this life, NIV)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마태복음 13:20-22, 개역개정)

현실적인 가정의 문제, 상처의 문제는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성도가 말씀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Cultivate)하고 회복하는 사역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영적 회복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은 회복사역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수는 그의 저서 〈성경적 내적 치유〉에서 내적 치유 사역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7]

> 첫째, 내적치유는 과거의 고통스럽고 어두운 기억이나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아픔과 억압에서 해방되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다.
>
> 둘째, 내적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셋째, 내적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역주권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도구가 되도록 속사람을 옥토밭으로 가꾸는 작업이다.
>
> 이처럼 내적치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 정서적인 회복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막고 있던 상한 마음을 치유함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하나님나라 확장을 기여하게 하는데 있다. 한마디로, 내적치유의 목적은 '영적 성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경수가 정리한 내적치유의 목적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회복사역의 목적과도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

[7] 김경수, *성경적 내적치유*(용인 : 목양, 2010), 19-22

이러한 흐름 가운데 각 교회 현장에서도 가정의 회복과 상처의 회복을 돕는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인 낮은울타리는 가정과 개인의 회복을 돕고자 성경적이면서도 지역교회에서 도입하기 쉬운 8 주과정의 부모회복학교(HMMS – Home Mission Ministry School) 과정을 개설하여 사역해 오고 있다. 부모회복학교(HMMS)의 목적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면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고 자녀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 가기 위해 순기능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부모회복학교(HMMS)는 8 주 과정의 프로그램이며, 참가자는 일주일에 한번 2:30-3:00 시간 길이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매주 주요 프로그램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 강의, 직면기도 소그룹으로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HMMS 허깅, 가족에게 용서와 사랑의 편지쓰기, 말씀확언카드 등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 학교의 진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형태 모두 가능하다.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 호주 등 많은 지역과 교회에서 이 학교가 진행되어 왔으며 수료자의 간증문을 통해 이 학교의 성과와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이 논문을 통해 이 사역이 어떠한 신학적, 학문적 기반이 있는 사역인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를 살펴보고 이 사역이 실제적으로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여러가지 척도를 통해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로 이 학교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학교를 채택하고자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과 지역교회에서 이 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되고, 이 사역을 통해 가정의 회복과 개인의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란다.

B.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이 부모회복학교(HMMS)가 실제적으로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1: 부모회복학교(HMMS)가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연구과제 2: 부모회복학교(HMMS)가 개인의 상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는가?

이 핵심 연구과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효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모회복학교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유사실험, 사전,사후(Before-After) 디자인을 활용해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이 부모회복학교가 시작될 때 한번, 마친 후 한번 익명으로 주어진 설문에 답하도록 함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여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임을 감안하여 인터넷으로 설문이 주어지고 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연구과제 1 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있는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Ⅱ(Korea Family Strengths Scale Ⅱ)'와 가족의 영적인 면에서의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접 만든 '영적 가족 강점 척도'를 사용할 것이다. 연구 질문 2 를 검증하기 위해서 Peter Scazzero & Warren Bird 의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수록된 '정서적 건강을 진단하는 척도'와 한국에서 Dr. Chan Lee 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 성숙도 척도'를 사용할 것이다. 이 척도 외에 10 점 척도를 활용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 중 어디에 더 가까운 지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본인의 상처 정도를 물어서 사전, 사후의 점수를 비교 하여 연구과제 1,2 를 검증하고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 1 장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과 방법 그리고 장 별 요약을 소개한다.

제 2 장 신학적 배경에서는 이 논문과 부모회복학교(HMMS)의 핵심 요소인 가정(창조), 죄와 상처(타락), 구속과 회복,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 직면기도, 비움과 채움의 신학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 3 장 문헌연구에서는 기존의 치유, 회복 사역들을 분석 및 비교해보고, 각 사역의 특징들과 각 사역이 가졌던 한계 및 부모회복학교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부모회복학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가정의 회복 부분에서는 이 논문의 첫번째 핵심 연구 과제인 역기능가정과 순기능 가정에 대한 문헌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의 영적 회복부분에서는 이 논문의 두번째 핵심 연구 과제 중 영적 회복 부분에 대한 문헌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 4 장 연구방법론에서는 부모회복학교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연구대상과 연구 절차, 연구도구와 평가설문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제 5 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논의, 연구의 제한점, 제언 및 추후연구과제를 정리한다.

II. 신학적 배경

본장에서는 이 논문과 부모회복학교(HMMS)의 핵심 요소인 가정(창조), 죄와 상처(타락), 구속과 회복,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 직면기도, 비움과 채움의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A. 가정(창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작은 공동체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며 행복한 공동체로 창조하셨다. 창 2 장 22-25 절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가정을 창조하심이 잘 나타나 있다.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창조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은 완벽하고 순기능적이며 건강했다. 타락전 에덴동산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정의 기본단위인 부부로서의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모두 건강하고 완전했다.

B. 죄와 상처(타락)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인간과 가족은 서로에게 죄를 짓고 상처를 입혔다. 많은 가정은 역기능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성경 안에는 타락한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역기능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사례로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 요셉의 가정 등 많은 본문을 예로 들 수 있다. 러셀 무어 교수는 그의 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에서 이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8]

> 인류의 조상이 창조자 대신 뱀과 결탁하기로 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탈선하여 추방되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파국을 맞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구조 가운데 첫번째인 가정은 그 재난의 타격을 크게 받았다. 남녀가 죄를 범하자 마자 하나로 연합된 몸이 와해되었고, 그들은 서로 앞에서 수치를 느끼고 반역에 대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의 결혼 생활은 불신과 불협화음, 경쟁으로 점철 되었다.(창 3:16b)
>
>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성경의 이야기는 가족 안에 온갖 분열이 일어나게 된 모습을 보여준다. 형제가 시기하여 살인을 저질렀고(창 9:18-27), 강간(창 19:1-11, 34:1-31), 근친상간(창 19:30-38), 부족 자경단의 명예살인(창 34:1-31), 성적 위협(창 39:1-23) 심지어 남편이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고 아내에게 매춘을 시키는 일(창 12:10-20)까지 벌어진다.
>
>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가족을 지향하려면 우리 모두가 역기능 가족에 속한다는 사실과 씨름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가족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도 이와 같이 이야기 한다.

> "인간이란 존재가 다 그렇지만, 나 역시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방어하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하나님과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지배, 속박, 공포, 무시, 부정, 회유, 갈등, 외로움, 걱정, 좌절, 분노, 비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9]

---

[8] Russel Moore,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속의 가정*, 김주성 역 (서울 : 두란노, 2019), 53-54
[9]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최종훈 역 (서울 : 두란노, 2016), 154

러셀무어 교수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기본적으로 역기능 가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기능 가정,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인간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라면 이 첫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문제, 역기능 가정의 문제, 역기능 가정 등 으로 인한 상처의 문제는 오직 두번째 아담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C. **구속과 회복** : 진정한 회복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의사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 그리고 역기능 가정의 문제는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죄와 함께 가는 상처의 문제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역기능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상처에서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다. 진정한 회복의 주체는 예수그리스도이며, 완벽한 의사 되신 하나님이다.

성경안에서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역기능 가정으로부터, 죄와 상처로부터 회복된 수많은 사례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요셉의 형제 용서, 룻의 가정의 회복,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의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 아무리 남자를 바꾸어 보아도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과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해결 받았다.

1. 회복의 주체 예수그리스도, 완벽한 의사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사이고 우리는 간호사입니다." 이것은 부모 회복학교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다. 오직 하나님 만이 사람과 그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 147:3)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의사 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 많은 사역에서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의사되신 하나님께 나가도록 돕는 간호사 역할이다. 우리는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는 더 많은 훈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 부모회복학교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사 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간호사가 되도록 돕는다.

데이빗 A 씨맨즈는 "성령께서는 비범한 상담자이며,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의 한 부분을 담당하신다"고 말하고 있다.[10] 씨맨즈는 의사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분을 유일한 치료자로 믿고 표현하며 사역가운데 적용했고 많은 열매를 경험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을 유일한 치료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 …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다."[11]

---

[10] David A. Seamands and Beth Funk, *상한감정의 치유 워크북*, 김재서 역 (서울: 예찬사, 1994), 43

[11] David A. Seamands and Beth Funk, *상한감정의 치유 워크북*, 김재서 역 (서울: 예찬사, 1994), 126

씨맨즈는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치료자요 기묘자요 모사(Counselor)로서 우리를 정서적, 관계적, 영적 온전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도록 돕는 것이었다”고 말한다.[12]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면서 내적치유사역을 해온 이성훈 교수는 그의 저서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원죄로 인해 형성된 인간의 근원적 원마음이 있다. 죄가 마음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였다. 죄로 인해 절대적 열등감, 죄의식, 버림받은 마음, 두려움, 불신, 분노, 굶주림 등이 인간의 원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성장과정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내적 치유는 정신 분석에서 다루는 성장과정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분석하고 치유함으로 더욱 본질적인 치유를 가능케 한다.
>
> 정신치료에서 치유의 힘은 병적 방어를 동참함과 함께 과거 잘못된 관계를 이해하고 바로 경험하는 것이다. …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은 복음속에 있다. 분석적 치료는 인간의 죄와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둔 채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의 치료이지만 내적치유는 인간의 근원적 죄와 상한 마음을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게 함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
> 그러므로 내적 치유의 가장 큰 힘은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실제적 능력이다. 그리고 이 힘은 성령을 통해 내면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 정신치료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의 힘이다.

이성훈 교수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생긴 근원적인 문제들과 상처의 치유는 이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벽한 의사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12] David A. Seamands, *탓*,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1997), 12

D.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 :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감

깊이 있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한다. 구약의 성막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은 바로 성막의 지성소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부모회복학교는 참여자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로 시작된다. 형식과 장소에 상관없이, 부모회복학교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와 다른 형식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회복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지성소의 개념이 명확하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가 예배를 이끌거나, 집에서 혼자 혹은 가족들과 예배를 드릴 때 설교에 대한 부담 없이 예배를 인도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성막의 구조와 그 의미를 기반으로 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로 드리고 있다.

구약시대에는 일년에 단 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아래의 두 성경구절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50-51)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 : 19-22).

부모회복학교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는 성막의 구조를 떠올리며 각 부분이 부여하는 의미를 묵상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특별히 성막의 한 부분 한부분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원(성막문), 대속(번제단),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됨(성소), 예수그리스도의 보혈과 육체(휘장), 하나님의 임재(지성소)를 상징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게 한다. 성막의 한부분 한부분이 부여하는 그 의미와 은혜를 묵상하며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림으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되새기고 묵상하게 되며 이는 더욱 깊은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빵을 먹으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묵상하게 되고, 입체적으로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부모회복학교(HMMS)에서 사용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는 아래와 같이 인도되어진다.[13]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성막(성전)을 상상하면 됩니다. 다윗의 장막, 모세의 성막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문을 지나 뜰로 해서 성소를 지나고 휘장을 지나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흠스에서의 예배인도자는 찬양과 말씀(설교가 아닌 선포 형식), 기도를 중심으로 흠스 멤버 전원이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

1. 성막문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막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의 문이 하나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식하면서 성막문을 지나겠습니다.

---

[13] 신상언, *직면* (서울 : 낮은울타리, 2017), 233-236

2. 뜰로 들어서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그리스도 보혈로 의의 옷을 입은 성도가 자백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한 후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잘못 인식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아가 번제단에서 완전히 죽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게 된 요인을 자백하고 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연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3.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연합이 되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명器皿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른쪽의 떡상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왼쪽의 등대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앞쪽의 분향단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5 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4. 휘장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은혜로 들어오라고 허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찬양하며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5. 지성소는 하나님을 일대일로 대면對面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법궤 즉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윗부분을 속죄소贖罪所 라고도 하고 시은좌施恩座 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상처와 욕망을 토설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마음을 빼기지 않기 위하여 마음과 연관된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교체되게 해달라고 토설하는 직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사 앞에 나아가 오늘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6. 구약시대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곳이 지성소가 됩니다. (히브리서 10:16, 예레미야 31:33)
이제 직면을 통해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된 것을 선포 합시다. "하나님의 법과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지성소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배인도자는 단계마다 적절한 찬양곡, 즉 구원에 관한 찬양, 십자가에 관한 찬양, 회개와 고백 찬양,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찬양, 성령을 사모하는 찬양, 감사 찬양, 지성소 찬양,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등과 선포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경과 진리에 입각한 예배를 통하여

> 모두가 안전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짧지만 영감있는 예배, 짧지만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 위해 인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은 비록 구약에 쓰여 있지만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며 오신 예수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진리와 은혜를 잘 전달하는 것이기에 성막의 개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로버트 웨버는 예배학 책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14]

> 하나님께서는 예배 제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장막과 후대의 성막에서의 예배의 패턴(형태)들은 상징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 정밀한 건축 설계, 금과 그 밖의 보설들의 사용, 색깔, 희생제사, 제사장 제대와 조직, 성스런 날들과 시간들 –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실재의 물질적 표징들이다.
>
>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든 형식들을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해석하였다.(히 10:1, 히 7-10장을 참조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의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지상적 규정들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따라서 구약의 규정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 신자들은 지상의 형식이 영원한 실재의 표징이 될 수 있다는 원리만큼은 거부하지 않았다.
>
> 결국 신약의 의해 폐기된 것은 구약시대의 특정의 형식일 뿐 지상의 형식이 영원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원리는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부모회복학교에서 드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는 구약의 형식을 취하는 예배가 아니라 구약의 성막의 형식이 전달하고 있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의미들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예배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 깊이 나아가며 과정 하나 하나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

[14] Robert E. Webber, *예배학*,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142-143

이성훈 교수는 그의 저서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며 위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다. [15]

> 팔복이 내적치유의 과정과 유사하다면 성막 역시 내적 치유의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유사성인지 모른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예수님께로 모아지며 특히 성막과 팔복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모형이므로 공통적인 과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
> 성막에서의 청결함은 여러 과정을 거친다. 먼저 물두멍에서 물로 씻고, 번제단에서 피를 흘림과 함께 불로 태운다. 그리고 다시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다. … 그후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순결한 새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성소에는 등대와 진설병이 있는데 모두 물, 피, 그리고 불로써 깨끗케 되며 이는 새로운 생명과 몸을 의미한다. … 이러한 청결함의 과정을 거친 우리의 새생명과 몸을 분향단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향기로 하나님께 내뿜음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죄와 상처로 인해 병든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청결케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지의 과정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의 저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지성소, 속죄소 에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16]

> 하나님의 사신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속죄소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의 궁정과 친밀할수록, 하늘의 신뢰를 더 잘 드러내는 법입니다. 목사로 하여금 목회사역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도록 만드는 모든 영향력 가운데, 제가 아는 한 속죄소와 친밀한 것 이상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
> 분명한 사실은, 모든 목회의 성공비결은 바로 속죄소에 항상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

[15] 이성훈, *상한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서울 : 두란노, 1994), 129-130

[16] Charles H. Spurgeon,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원광연 역(서울 : CH 북스, 2009), 66, 69

스펄전 목사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속죄소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공비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성공비결일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비결이라 할 수 있겠다.

E. **직면기도** : 다윗과 시편기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으면 상처로부터 도피하려고 술이나 심지어 마약, 혹은 드라마나 게임 등 다른 대체물을 찾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반대로 상처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거나 분노를 폭발한다. 상처를 대응하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이 두가지 도피나 폭발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진정한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쏟아 놓는 것이다. 부모회복학교에서는 그것을 직면이라고 표현한다. 직면에 대해서 '직면' 책의 저자이자 부모회복학교 설립자인 신상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 "직면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슬픔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직면이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직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픔을 토해 내는 것입니다. 직면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만나 주실까요? 우리 주님 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직면은 온전한 의사 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픔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
> 직면은 나눔이 아닙니다. 직면은 상담이 아닙니다. 직면은 내적치유가 아닙니다. 직면은 직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문제와 상처를 기도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직면할 때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 있다. 다윗과 많은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문제와 상처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직면한

좋은 사례들이다.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후 하나님 만지심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시편 142 편 2 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쓰여 있다. 직면은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이며, 자신의 우환을 그의 앞에 기도로 진술하는 것이다. 시편 102 편 또한 직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 하소서"(시 102:1-2)

상한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을 통해 내야지 아픈 배가 치료되는 것처럼,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 내야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사무엘상 1 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대표적인 직면기도라고 할 수 있다. 사무엘상 1 장 10 절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새번역) 15-15 절에 엘리제사장에게 한나가 대답한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새번역) 16 절에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새번역)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은 한나는 기도가 응답되기 전이였지만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18 절) 이 기도를 통해 마음에 자유함과 회복을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한나의 자녀에 대한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20 절에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마태복음 11 장 28 절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처럼 직면기도는 한나처럼, 시편기자들처럼 주님의 품 앞에 나아가 삶의 무거운 짐, 상처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두 토해 내는 것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시 147:3 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처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쉽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

직면기도는 부모회복학교의 핵심 부분이다. 부모회복학교는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직면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면기도는 사람들이 중독의 주요 원인인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다. 부모회복학교는 이를 통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중독이 줄어들고 가족이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부모의 회복과 치유가 순기능 가정과 건강한 자녀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주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픔과 죄를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직면기도 시간동안 부모회복학교 참여자들은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상한감정의 치유의 저자 데이빗 A 씨맨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특별한 종류의 기도와 깊은 경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역설해 왔다." [17] 바로 직면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앞에서 드리는 기도이며, 직면기도를 통해 드려야 할 깊은 상처인 핵심감정, 쓴뿌리가 바로 이런 깊은 경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17] David A. Seamands and Beth Funk, *상한감정의 치유 워크북*, 김재서 역 (서울: 예찬사, 1994), 24

수 있겠다. 육체적인 상처의 경우도 피부에 살짝 난 상처는 연고정도만 바르면 치료될 수 있지만 암이나, 내장 깊숙한 곳의 상처는 안전한 수술실에 들어가 집도한 의사의 의해 수술이 되어 야지 치료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씨맨즈는 이렇게 말한다. "성령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신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할 지조차 알지 못한다. 우리 자신에 대해여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 구하라."

부모회복학교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직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예배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사역의 승패를 좌우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은 강의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잘 인식하게 도와주시며, 직면기도가운데 직면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직면하게 도우신다. 그를 통해 깊이 있는 회복은 이루어진다. 또한 이렇게 이루어진 회복의 역사는 사람과의 나눔, 혹은 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한 치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씨맨즈는 분노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 한다. "분노에 대한 치료는, 분노를 감추고 태연한 듯 가장하는 가식을 걷어 내고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박는 데서부터 시작된다."[18]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직면하는 직면의 기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듯이 점잖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놓지 못할 것이 없다. 분노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18] David A. Seamands and Beth Funk, *상한감정의 치유 워크북*, 김재서 역 (서울: 예찬사, 1994), 186

아뢰고 그것을 토해 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분노로부터의 자유, 상처로부터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씨맨즈는 이야기 한다. “당신은 고민하는 상처와 증오와 분노 중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내어 놓았을 때 그분께서 이해하지 못하실 것은 결코 없다. 그는 사랑과 은혜로 당신을 열납 하신다.”[19] 이성훈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큰 치유의 힘은 기도이다. 세미나는 치유의 동기와 마음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조별 모임을 통해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지만 이를 기초로 한 실제적인 치료는 기도이다. 성령에 의한 치유적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회복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은 바로 직면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강의와 나눔으로만 그치는 치유사역과 차별화되며 회복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F. 비움과 채움

이러한 부모회복학교에서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비움과 채움이다. 죄와 상처를 비워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채워가는 것이다. 부모회복학교에서 지성소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백의 기도를 통해 죄를 자백하고, 또한 직면의 기도시간 죄와 상처, 욕망을 기도로 비워낸다. 동시에 구원을 상징하는 성막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고,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나의 죄값을 값없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 또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성소에서 이제 나의 자아는 죽고, 비워지며, 온전히 예수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19] David A. Seamands and Beth Funk, *상한감정의 치유 워크북*, 김재서 역 (서울: 예찬사, 1994), 192

나아가게 된다. 지성소에서는 직면기도를 통해 자신의 죄와 상처를 비워냄과 더불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지성소로 초청해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경험한다.

8 주간 매주 진행되는 강의시간을 통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견고한 진 핵심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할분 아니라 비뚤어져 있던 삶의 기준들을 깨닫고 직면기도시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비워내야 할 것들을 알게 한다. 동시에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돌아온 탕자를 달려가 얼싸안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 회복사역 가운데 비움만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 한계점을 지닌다. 하지만 비움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의 은혜, 건강한 회복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모회복학교(HMMS) 또한 그러한 비움과 채움의 두가지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역이 진행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상한감정의 치유의 저자 데이빗 A 씨맨즈도 그의 저서 상한 감정의 치유 워크북에서 이러한 두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20] 제시한다. “당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라.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과 비밀을 모두 과감하게 내어 놓으라. 그리고 그분이 무어라 말씀하시는 지 귀 기울여 들어보라.” 사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비움과 채움의 기도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 회개의 기도, 상처를 토로하는 기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0] David A. Seamands and Beth Funk, *상한감정의 치유 워크북*, 김재서 역 (서울: 예찬사, 1994), 11

III. 문헌 연구

A. 기존의 치유, 회복사역들 분석 및 비교 : 부모회복학교(HMMS)와의 차이점

3 장에서는 먼저 기존의 치유, 회복 사역들을 분석 및 비교해보고, 각 사역의 특징들과 각 사역이 가졌던 한계 및 부모회복학교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부모회복학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한국교회 내에서 치유, 회복사역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을 끼쳐온 세개의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회복축제(Celebrate Recovery, 새들백교회, 온누리교회)

새들백 교회가 시작하고 미국과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회복사역인 “회복축제”(Celebrate Recovery) 사역을 먼저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온누리교회가 도입해서 10 여년간 적용해 온 사역이다.

“회복축제”(Celebrate Recovery) 의 시작은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위한 익명의 그룹’(AA, Alcoholic Anonymous Group)로 거슬러 올라간다. AA 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치료프로그램이라고 알려질 만큼 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해 왔다. 이 AA 의 시작은 윌리엄 윌슨(William Griffith Wilson) 이였다. 그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알코올 중독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AA 를 생각해 내었다. 그리고 로버트 홀브루크 스미스(Robert Holbrook Smith – Dr. Bob Smith) 박사의 도움으로 본격적으로 AA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AA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2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이 12 단계는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도 받아들이기 쉽게 용어를 변경시켰지만 그 배경은 기독교적 영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a. **AA 의 12 단계**

1 단계.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 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2 단계. 우리는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3 단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게 된 신의 보살핌에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4 단계.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생활을 검토했다.

5 단계. 우리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했던 점을 신과 자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인했다.

6 단계. 우리는 신께서 우리의 모든 성격상 결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7 단계. 겸손한 마음으로 신께서 우리의 결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간청했다.

8 단계.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하기로 결심하였다.

9 단계.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10 단계. 자신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다면 즉시 시인했다.

11 단계.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신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뜻만 알도록 해 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12 단계. 이러한 단계들의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 되었고,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21]

이 12 단계의 기독교 버전은 다음과 같다.

1 단계. 우리는 '삶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 무력하며, 스스로 삶을 조절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시인했다. (롬 7:18)

2 단계.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 (빌 2:13)

3 단계.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기기로 결정한다. (로마서 6 장 13 절)

4 단계.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도덕적 목록을 검토했다. (애 3:40)

5 단계. 솔직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했던 점을 하나님과 자신, 또 다른 사람에게 시인했다. (약 5:16)

[21]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12 단계와 12 전통* (서울: 한국 A.A., 1989), 7-12

6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성품적 결함을 제거해 주시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다. (약 4:10)

7 단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함을 제거해 주시도록 간청했다. (요일 1:9)

8 단계.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 (눅 6:31)

9 단계.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마 5:23-24)

10 단계. 지금까지의 단계를 통해 배운 것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실천한다. (고전 10:12)

11 단계.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골 3:16)

12 단계. 이러한 단계로서 생활해 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 (갈 6:1)[22]

"회복축제"(Celebrate Recovery)는 이 12 단계를 축소하여 팔복을 통한 회복의 8 가지 원리로 정리하여 사역을 진행한다. 회복의 8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원리 1: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Realize).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으며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5:3 상)

[22] Builders, Bridge.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찾아가는 길*.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3, 8

원리 2: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라(Earnestly believe).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 임이요”(5:4)

원리 3: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Consciously choose).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5:5 상)

원리 4: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하고(Openly examine), 하나님과 나 자신과 신뢰하는 제삼자에게 고백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5:8 상)

원리 5: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으키기 원하시는 모든 변화에 기꺼이 순종하고(Voluntarily submit), 내 인격의 결점들을 제거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5:6 상)

원리 6: 나의 모든 관계들을 평가해 보고(Evaluate),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라. 단, 예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나 제삼자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5:7 상),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5:9 상)

원리 7: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여(Reserve) 자기 점검, 성경 읽기,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얻으라.

원리 8: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Yield) 나의 모범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으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5:10)[23]

---

[23] Rick Warren, *회복으로 가는 길*,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234.

온누리교회에서는 2004 년 이 사역을 도입하여 10 여년간 적용해 왔다. 이 사역에 대해 온누리 회복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원 목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정리하고 있다.

> "온누리교회에서는 10 여년 동안 12 단계를 중심으로 회복 사역을 진행하면서 사역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12 단계가 중독자 중심의 회복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누구나 와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역이 요구되었다. 한 개인의 인생 전체의 회복을 위한 사역,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역,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 기쁨으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회복 사역의 모델을 찾게 되었다."[24]

이기원 목사가 정리한 것처럼 "회복축제"(Celebrate Recovery) 사역은 중독자 중심의 회복프로그램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중독 문제 뿐 아니라, 상처의 문제, 역기능 가정으로 인한 문제 등 전반적이고, 전인적인 회복을 돕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온누리교회는 2004 년 새들백교회의 CR(Celebrate Recovery)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회복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들백교회의 회복 사역은 철저하게 '지원 그룹'(Support Group)이라는 소그룹 원리와 12 단계의 회복 원리를 따르고 있다. 소그룹원들은 자신의 어두운 비밀과 아픔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를 경험한다. '고백과 나눔'을 통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 회복 모임의 역할이었다.[25]

이기원 목사는 또한 이사역이 지원그룹을 기반으로 자신의 어두운 비밀과 아픔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듣는 '고백과 나눔'을 통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돕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어두운 비밀과 아픔을 나누는 것은 그것이 나누어진 그룹안으로만 국한되어지고,

---

[24] 이기원, THRIVE: RELATIONAL SKILLS TRAINING PROGRAM(TRST)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자아 존중감과 영적 성숙을 중심으로–,(2020), 19

[25] 이기원, THRIVE: RELATIONAL SKILLS TRAINING PROGRAM(TRST)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자아 존중감과 영적 성숙을 중심으로–,(2020), 21

비밀이 보장되어질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나눔을 기반으로 한 치유 혹은 회복사역에서 그 나눔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교회 혹은 공동체 내에 소문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보고된다. 이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양산할 수 있기에 회복사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이기원 목사의 논문에서 정리한 "회복축제"(Celebrate Recovery)사역을 포함한 온누리교회 15 년 회복사역의 문제와 한계점을 정리한 글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누리교회는 15 년째 회복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전통적인 회복 사역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와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
> 첫째, 회복사역에서 치유 받는 성도들 중에서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
> 둘째, 소그룹으로 모여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
> 셋째, 회복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 심각하게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두 그룹간의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
> 넷째, 소그룹 구성원 간에 비밀유지가 유지되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았다.
>
> 다섯째,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치심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
> 여섯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성장하지 못하였다.
>
>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회복 사역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
> –한국의 문화에 맞는 회복 사역
>
> –과거의 문제에 집중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인 회복 프로그램
>
> –치유가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역
>
> –회복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역
>
>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온유한 보호자로 성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 –하나님과 깊은 교류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들을 정서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회복 사역이 필요하게 되었다.[26]

---

[26] 이기원, THRIVE: RELATIONAL SKILLS TRAINING PROGRAM(TRST)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자아 존중감과 영적 성숙을 중심으로–,(2020), 22

넷째, 소그룹 구성원 간에 비밀유지가 유지되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았다 라는 것과 다섯째,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치심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라는 사실은 앞에 언급한 나눔 중심의 회복사역의 문제점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또한 위 내용은 기존 회복사역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회복사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

1-1. 회복축제(Celebrate Recovery)와 부모회복학교(HMMS)의 비교 및 차이점 – 나눔이 아닌 직면

회복축제(Celebrate Recovery)와 부모회복학교(HMM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모회복학교가 나눔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는 직면중심 사역이라는 것이다.

부모회복학교를 회복사역으로 준비하고 디자인할 때 깊은 상처와 핵심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나누었을 때 가지는 부작용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눔 보다는 진정한 치유자, 회복자 되신 하나님께만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토하고 진술함으로 회복을 누리도록 하였다. 실제로 나눔이 아닌 하나님께만 상처를 토해내는 직면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면서 나눔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고, 나눔 보다 더 강력한 회복의 열매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는 도전점은 당장은 사람들이 직면보다 나눔을 선호하고 더 쉽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나눔은 영적인 임재가 강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직면을 통한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어야 제대로 이루어지기에 더욱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 지지 않았을 때는 직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눔 보다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는 부모회복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미리

도전하는 부분이다. 반면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직면이 이루어졌을 때는 나눔과는 비교될 수 없는 깊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2. 내적치유사역연구원 – 내적치유세미나

한국내에서 치유사역과 회복사역관련 되어서 매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사역을 해온 곳이다. 주서택 목사가 대표로 있으며 2 박 3 일로 진행되는 내적치유세미나가 대표적인 치유사역 프로그램이다. 1992 년부터 2021 년까지 149 회의 내적치유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왔다.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은 이 세미나를 한국교계 최초의 성경적인 내적치유세미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내적치유세미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내적치유사역연구원에서는 1992 년부터 지금까지 2 박 3 일 프로그램으로 내적치유세미나를 열고 있다. 내적치유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는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의 뿌리들이 일대일 상담이나 교육으로는 드러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치유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만을 쫓는다고 하시듯 합심하여 주님의 치유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2 박 3 일의 여정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치유의 현장이다.
>
> 치유에 대한 지식과 심리적인 이해가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내적치유는 감정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속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수술의 작업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은 크게 나타난다. 그 동안 책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치유에 대해 이해하고 어느 정도 자신 안에서 치유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적치유세미나를 통하여 성령이 깊이 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임을 수많은 참석자들은 증언하고 있다.[27]

[27] http://www.innerhealing.or.kr

내적치유 세미나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992 년부터 한국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성서적 내적치유세미나는 이제 한국교회 내에 대표적인 내적치유 사역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 특별히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주관했던 성서적 내적치유세미나는 세상적인 심리 기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경말씀과 십자가의 원리를 근거로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가장 복음적인 성서적인 내적치유 사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28]
> 내적치유 세미나의 2 박 3 일간의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28] http://www.innerhealing.or.kr

〈표 1〉 내적치유세미나 일정표

시간	첫째날	시간	둘째날	시간	셋째날
	 	6:00	기상/말씀묵상 (시편 139편)	6:00	기상/말씀묵상 (에스겔 36장25~28절)
		아침 식탁			
		8:00	임재하심의 찬양	8:00~8:10	찬양과 치유
		8:30~9:30	과정5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8:30~9:00	과정 11 영적전쟁과 헌신의 시간
				9:50~10:00	휴식
		10:00	휴식	10:00~10:30	과정12 치유가 성숙으로
		10:30~11:00	과정6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영성훈련	11:00	개인간증문기록
		11:20~12:00	과정7 회상의 기도	11:20~12:00	과정13 치유나눔과 파송식
		12:30~1:00	침묵의 식탁	12:30~1:00	감사의 식탁
1:30	등록 및 숙소배정	1:30	찬양과 치유		
2:00~2:30	과정1 내적치유로의 초대	2:00	간증		
3:00	간증 및 치유찬양	2:30~3:30	과정8 쓴 뿌리와 용서		
3:30~4:00	과정2 성서적 내적치유란 무엇인가?	4:00~5:30	그룹 모임 3		
4:30	휴식 및 이동				
5:00~5:30	그룹 강의 (지식인가 관계인가)				
6:00~6:30	만남이 있는 식탁	6:00~6:30	교제의 식탁		
7:00	찬양과 치유				
7:30~8:00	과정3 나는 누구인가?	7:30~8:00	과정9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9:00~9:30	과정4 죄씻음의 시간과 치유의 기도	9:00~9:30	과정10 성찬식 및 기도의 시간		
10:00~10:30	그룹 모임 2	10:00~10:30	그룹 모임 4		
11:00~12:00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님안에서 안식을...		주님안에서 안식을...			

세미나는 13 개의 과정과 네번의 그룹모임,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팬데믹 전에는 2 박 3 일간 수양관에서 이루어져왔던 세미나를 팬데믹 동안에는 화상앱인 Zoom 을 통해 매일 저녁 7 시~10 시 30 분까지 4 일간 진행해왔다.

내적치유세미나에서 말하는 내적치유를 치유사역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인간의 정신적 문제, 내적인 문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다. 전인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한사역이다."
>
> 건강한 전인이란 삼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가 성장해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던 내용, 즉 주님에게 나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내적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표이기도 하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 새롭게 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하게 막는 견고한 진과 같은 걸림돌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
> 성서적 내적치유사역은 이런 걸림돌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를 알게 하며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를 교육한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마음의 일치를 막는 모든 걸림돌들, 즉 왜곡된 사고방식 상처 등을 회복해 가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이 사역의 목표다.

2-1. 내적치유세미나와 부모회복학교(HMMS)의 비교 및 차이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면에서 부모회복학교와 가장 유사한 구성을 지닌 사역이 내적치유세미나라고 할 수 있다. 내적치유세미나도 찬양과 강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회복학교도 찬양과 기도 등으로 구성된 지성소예배와 강의, 직면의 기도로 진행이 된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내적치유세미나에서는 지성소 개념이 없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진행이

되지만 부모회복학교는 강의전 지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기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지만 부모회복학교는 토로와 직면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도를 드리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강의의 진행방식이다. 내적치유세미나는 강사인 주서택 목사와 김선화 박사가 강의를 직접 진행한다. 그렇기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내적치유사역연구원이 주최하는 내적치유세미나에 직접 현장혹은 Zoom 으로 참여하거나, 교회로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회복학교는 모든 강의가 영상으로 촬영 및 편집 되어 있기에 강사가 가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부분은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내적치유세미나처럼 강사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 될 경우에는 강사가 오지 않으면 혹은 강사로부터 오랜 기간 훈련 받은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개교회에서 치유사역 혹은 회복사역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부분은 지역교회에서 회복사역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회복사역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회복학교는 강의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기에 강사의 초청없이 지역교회에서 훨씬 쉽고 용이하게 회복사역으로서 부모회복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 이는 비용적으로도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를 지닌다.

부모회복학교를 지난 10 여년간 진행하고 섬겨오면서 보고 경험한 것은 8 주과정의 부모회복학교를 한번 이상만 참여하고 2 시간정도의 리더훈련을 참여한 어느정도 영적으로 준비된 목회자, 사모, 혹은 평신도라면 누구라도 부모회복학교를 진행자로 설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는 특별히 강사를 지역교회로 모셔오지 않아도 되고, 강의자체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하겠다. 지역교회에서는 리더가 부모회복학교 개강 전 및

진행하는 동안 중보기도를 바탕으로, 강의 전 지성소 예배와 강의 후 직면기도 그룹만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또한 회복사역을 맡는 리더가 외부에서 초청해온 강사가 아니라 내부에서 준비된 사역자 혹은 성도이기에 사역의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매주 좋으며, 교회의 크기 여부 및 참여인원의 수에 상관없이 인도자만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열 수 있다 라는 큰 장점이 된다.

3. YWAM(Youth With A Mission),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예수제자훈련학교

한국 교회에서 치유나 회복사역을 떠 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YWAM(예수전도단)의 예수제자훈련학교 즉,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이다. 그만큼 치유, 회복사역의 큰 줄기와 영향력을 만들어온 것이 YWAM DTS 라고 할 수 있다. DTS 에 대해서 YWAM KONA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예수제자훈련학교 (Discipleship Training School)는 열방대학의 입문과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는 YWAM 의 비전이 반영된, 그리스도인의 집중적인 6 개월 제자 훈련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29]

YWAM 의 SALEM 웹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DTS 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DTS 소개
>
> 예수전도단(YWAM)의 Discipleship Training School(DTS)는 12 주간의 강의와 가르침으로 시작하여 약 12 주의 전도여행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DTS 는 학생들 저마다의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라가게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케 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타문화 경험과 세계를 향한 인식으로 학생들 모두가 현재와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29] https://ywamkona.org/?lang=ko

족속으로 가서 나라를 제자 삼으라"(마태복음 28 장 19 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DTS 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DTS 의 목적

DTS 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도움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라와 사회 모든 영역을 제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DTS 의 목표

1. 성경적인 기초와 격려를 통해 삶 속에서의 배운 진리를 적용하며 그리스도 인의 성품을 개발함으로써 나아가 복음의 전도자로써 살아 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미전도 족속을 향한 복음의 부담감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친 비전, 그리고 세계로 확대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성장에 대한 헌신을 강조함으로 YWAM, 또는 다른 복음적인 선교단체와 함께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Youth With A Mission International 의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와 부르심, 사역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제자들을 준비합니다.

DTS 의 계획

1. 학생들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도록

– 매일의 경건한 삶, 중보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2. 학생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 겸손과 관대함, 죄에 대해 자원하여 고백하며 회개함, 사랑함으로 기쁘게 섬김 등을 통해서

3. 학생들이 세계 복음화에 그들의 삶을 위탁하도록

–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4. 학생들이 개인의 부르심에 참여하도록

– YWAM 이나 다른 선교 단체들 또는 지역 교회와 연합하여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또는 선교를 위해 적어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기도를 통해서[30]

[30] https://blog.daum.net/ymsalemkm/4

DTS 는 치유사역, 회복사역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DTS 의 이름에도 담겨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 훈련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치유 및 회복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훈련가운데 이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컸기에 많은 사람에게 치유사역, 회복사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DTS 는 KONA 와 SALEM 과 같이 YWAM 베이스로 직접 가서 기숙하며 진행되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 DTS 는 12 주간의 강의와 훈련 12 주의 전도여행이라는 긴 기간과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기에 참여가능한 사람이 매우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DTS 가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BEDTS, Eagle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for Businessman) 이다. 독수리 예수제자훈련학교는 주로 참여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게 되며 비용도 기숙형태의 DTS 보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 BEDTS 에 대해서 OC(Orange County) EDTS 독수리제자훈련학교 웹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EDTS 의 개요...**
>
> EDTS 는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총 7 개월 과정으로 26 주의 강의 및 현장실습(Field Assignment)과 약 2 주간의 전도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일주일에 원칙적으로 2 일 출석과 5 일간의 개인별 적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품개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독특한 은사개발 및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여 거기에 헌신하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 **EDTS 의 목적...**

1. BEDTS 의 목적은 주님께 헌신된 직장인들을 모아 성경적 원리원칙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케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개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시키는데 있습니다.

2.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이 속한 삶의 현장 (7 Mind Molds)에서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책임에 따라 직업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국내외에서 전문인 사역(Tent Maker)을 일으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3.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와 공동체에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이런 훈련과정이 일어나도록 도우며, 교회가 직접 세계복음화에 효과적으로 앞장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EDTS 의 목표...**

1. 하나님과 자신,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깊이 있게 치유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생활화되게 합니다.

2. 말씀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건강한 신앙 생활이 일상화 되도록 합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과 시간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사용법을 배워서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시켜서 성령과 악한 영에 대해 분별력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합니다.

▸ **EDTS 의 훈련 내용...**

1.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한 삶을 발전시켜 가는 법

2.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

개인의 성품개발, 각자에 대한 은사와 사역의 발견, 활용, 청지기의 삶에 대하여, 건전한 인간관계의 정립, 용서하는 삶

3. 말씀과의 관계

말씀과 항상 함께 하는 삶의 습관을 개발,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법

4. 세상과의 관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법, 전도와 타문화선교, 미전도 종족 전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 성경적 세계관, 사회 현상들에 대한 복음적인 해석 방법

5. 교회와의 관계

위탁 및 일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상호보안에 대한 이해

6. 악한 영과의 관계

원수의 정체를 바로 알기, 기도와 중보기도, 영적 전쟁 [31]

BEDTS 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DTS 도 BEDTS 와 거의 동일한 강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 2〉 BEDTS 강의내용

구분	강좌명
하나님을 알다	복음 기초 하나님 음성듣는 삶 아버지 사랑 묵상
삶으로 배우다	예배와 찬양 중보기도, 영적전쟁 다림줄 성령 십자가의 도 재정 그리스도인의 삶
	* 전 도 여 행 *
그분을 알리다	세계관 북한선교 전문인 선교 섬김과 다스림

DTS 와 BEDTS 에서 다림줄 강의가 치유사역이 이루어지는 핵심강의라고 할 수 있다.

[31] http://ocbedts.org/BEDTS

[32] http://bedts.org/introduce02

3-1.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예수제자훈련학교와 부모회복학교(HMMS)의 비교 및 차이점

DTS 와 부모회복학교의 차이점을 몇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DTS 는 치유 및 회복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자훈련학교라면 부모회복학교는 회복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둘째, DTS 는 DTS 나 BEDTS 모두 내적치유세미나와 동일하게 직접 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중심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내적치유세미나와 동일하게 개교회에서는 비용부담과 준비의 부담 측면에서 개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와싱턴에 소재한 대형 한인교회인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담임 : 류응렬 목사)는 독수리제자훈련학교(BEDTS)의 교회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비둘기예수제자훈련학교(Dove DTS)[33]를 개설한적이 있는데 이는 교회가 대형교회 였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YWAM 의 베이스에서 진행되는 DTS 의 경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라는 점이다. YWAM KONA 베이스에서 주최하여 2021 년 9 월 30 일부터 시작되어 2022 년 2 월 23 일까지 5 개월간 강의 및 단기선교가 진행되는 DTS 과정의 경우 현지까지의 항공료를 제외하고도 강의료를 $3995(약 475 만원) 단기선교비용으로 $4000-5000(약 475-600 만원)이 책정되어 있다.[34] 항공료를 포함하면 거의 만불(약 1200 만원)가까이 소요된다. 약 만불의 비용과 5 개월(24 주)이라는 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원하여 DTS 에 참여하고 싶은 많은 이들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

[33] https://www.kcpc.org/training-adult/training2/dts

[34] https://ywamkona.org/dts_courses/international-korean-dts/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직장인 혹은 주부 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BEDTS 의 경우에도 수업료가 적지 않다. 서울의 BEDTS 의 경우 전도여행비를 제외한 수업료만 총 160 만원(약 $1350)이 된다.[35] DTS 에 비해 BEDTS 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업료이지만 이 마저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하겠다. 기간 및 시간은 서울의 BEDTS 의 경우 8 개월 동안 매주 이틀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주간반의 경우 일주일에 두번 오전 10 시~오후 3 시까지, 야간반의 경우 금요일 오후 7 시~10 시, 토요일 오후 2 시~8 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시간적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에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거나 직장 및 지역교회의 섬김 등으로 일정이 바쁠 경우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서 부모회복학교는 낮은울타리 본부나 지부에서 주최하는 것도 8 만원(미국 $90)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고, 8 주간 매주 1 회 2 시간 30 분−3 시간만 할애하면 참여할 수 있다. 회복을 원하는 이들에게 부모회복학교나 DTS 나 BEDTS 에 비해 비용과 시간면에서 매우 진입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부모회복학교를 지역교회에서 개최할 경우 낮은울타리에 컨텐츠 비용으로 1 인당 3 만원($30) 씩만 등록비를 지불하면 되기에 교회나 개인 모두 재정적 부담이 거의 없이 주최 및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네번째, DTS 와 BEDTS 의 경우 치유 및 회복사역 과정에서 자신의 깊은 상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진다. 이는 이미 나눔 중심의 회복축제(Celebrate Recovery)와의 비교에서도 분석한 것처럼 비밀유지가 잘 안됨으로 야기되는 문제, 고백할 때는 괜찮았는데 고백이후에 다시 그 부분이 부끄러워서 혹은 부담이 되어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35] http://bedts.org/introduce02

문제 등이 야기되어진다. 이해 비해 부모회복학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직면함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세개의 사역과의 비교에 따른 부모회복학교(HMMS)의 필요성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의 성도들과 많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각 지역교회에서 쉽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많은 치유, 회복 사역들이 큰 교회 및 중앙집중형 회복사역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나눔 중심사역으로 인한 부작용과, 강사 중심 및 고비용의 사역들이어서 지역교회에서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는 열기가 쉽지 않았다. 부모회복학교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존의 사역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눔이 아닌 직면 중심의 사역이기에 나눔의 부작용이 없이 회복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부모회복학교는 강사중심이 아닌 강의가 영상으로 제공됨으로 각 지역교회에서 열기에 용이하다. 지역교회에서 부모회복학교 8 주과정에 한번 이상 참여하고, 2 시간여의 리더훈련을 받은 리더만 준비된다면 각 지역교회에서 쉽게 지속적으로 열수 있다. 교회의 크기, 참석자의 숫자에 상관없이 리더만 준비되면 열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다. 강사 중심의 사역의 경우 강사가 왔다가 떠나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부모회복학교는 지역교회내의 목회자, 사모, 혹은 평신도 리더가 리더를 맡아 섬김으로 각 지역교회 내 사역으로 잘 정착 활용될 수 있다. 특별히 목회자가 지정의 중 말씀중심의 지적인 사역을 주로 맡는다 라면 사모가 정적인 부분의 회복을 감당하는 부모회복학교

사역을 맡아 성도들의 회복을 도울 뿐 아니라 남편 목회자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수 있다. 이부분은 지난 10 여년간의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수없이 경험된 바 있다.

셋째,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준비할 수 있기에 학교를 개설하기에도 참여하기에도 용이하다. 다른 사역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부모회복학교는 비용적으로도 적게 소요될 뿐 아니라 시간도 8 주만 할애하면 되기에 개설과 참여도 용이하다. 시간적으로 8 주를 모두하기 어려울 경우 5 주나, 6 주로 줄여서 개최할 수도 있고, 2 박 3 일 수련회 형태로 개최할 수 있어서 교회와 성도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개최하기에 용이하다.

B. **가정의 회복** :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

여기에서는 논문의 첫번째 핵심 연구 과제인 역기능가정으로부터 순기능 가정으로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문헌연구를 하고자 한다.

먼저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가정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가족 치료에 대한 권위자들은 정상 가정, 비정상 가정이라는 단어 대신 가족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건강한 모습의 가정인 '순기능 가정', 여러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족을 '역기능 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36]

1. 순기능 가정의 의미

양미숙은 그의 논문에서 순기능 가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36] 김재현, 대상관계 이론을 통한 역기능 가정의 분석 및 내적치유사례연구 (총신, 석사, 2019), 17

순기능 가정이란(Functional families)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복하며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건강한 가정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에 가정은 도전과 위기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또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대신 가족의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게 대처해 나간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럴 수 있다는 듯이 인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당황하지 않으며 해결해야 할 일로 받아 들인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의 문제를 공개하고 외부의 도움도 기꺼이 받는 가정이다. 또한 순기능 가정은 명확하게 설정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기독교가 보여주는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각자가 인격형성에 도움을 얻는다. 가족 사회 학자들은 건강한 가정, 양육적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고 한다. [37]

2. 역기능 가정의 의미

손현미의 논문과 강경호와 최현주의 책에 따르면 역기능 가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역기능 가정이란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성장을 저해하는 가정을 말한다. 바로 역기능 가정이란 앞서 가정의 기능에서 제시한 기능이 충족되지 못한 가정을 말한다.[38]
가정이 자녀출산과 양육 및 종족보존, 성적 욕구 충 족 및 통제, 사회화 교육, 지위부여, 경제적 협동, 정서적 지지와 만족, 그리고 사회통제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다.[39]
역기능 가정은 심리적으로 혼란한 가족체계, 혹은 육체적, 정신적, 성적, 종교적 학대가 있는 가족체계, 근본주의적 이거나 경직된 독선적인 가족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보살피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정서에 의존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이다. [40]
대개 역기능 가정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내적 상처들을 많이 안고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상처들이 습관과 행동 그리고 삶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1]

---

[37] 양미숙, 교회내 역기능 가정의 성인아이 치유와 회복에 관한 연구(고신, 석사, 2015), 13
[38] 손현미,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상한 감정 치유방안 연구(상명, 석사, 2010), 19
[39] 강경호, *역기능가정의 성인아이와 상담*,(고양:한가족 가족상담연구소,2002) 31.
[40] 손현미,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상한 감정 치유방안 연구(상명, 석사, 2010), 20
[41] 최현주, *위장된 평화의 치유* ,(서울:규장문화사,1998),69-70.

3.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의 특징

기존 연구들에서 표현하는 순기능 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은경은 그의 논문에서 여러 학자의 책과 연구자의 논문에서 정리한 순기능 가정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공통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42]

〈표 3〉 순기능 가정의 특징과 공통점

학자명	순기능 가정의 특징	공통점
Butman & Jonce	1. 도전과 위기에 능동적으로 반응 2. 명확하게 설정된 세계관 가짐 3. 정확한 의사소통 4.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짐 5.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강함 6. 정서적 지지와 격려	1. 분명한 의사소통과 감정표현 2. 문제와 갈등의 효과적 대처 3. 가족 내 경계와 규칙의 융통성 4. 가족 구성원들의 무조건적 수용과 격려 5. 친밀감과 자율성의 균형
Bradshaw	1. 친밀감 증진 2. 협상을 통한 갈등해소 3. 명확한 의사소통 4. 상호신뢰 5. 개성의 격려 6. 개방성, 융통성 7. 욕구 충족 8. 책임공유 9. 실수 용납	
김유숙	1. 원만한 의사소통 2. 정서적 협력관계 3. 가족 응집력 균형 4. 위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소유 5. 건강한 감정 표현 6. 긍정적 자아상	

[42] 이은경, "역기능 가정의 성인아이 치유를 위한 기독교적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개발",(한남,석사, 2001), 10

이 표에서 아쉬운 점은 일반적인 순기능 가정의 특징은 잘 정리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역기능 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손현미는 그의 논문에서 여러 학자의 책과 연구를 기반으로 역기능 가정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43] 많은 분량이지만 역기능 가정의 특징을 잘 정리하였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 가정을 "사람을 만드는 공장"에 비유한 새티어(Satir)는 가족체계에서 가장 주된 구성요서는 결혼 관계,즉 부모 하위 체계(parental subsystem)이다.어머니 자신의 관계와 아버지 자신의 관계,그리고 그들의 상호관계가 가정의 기초가 된다.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설계자들이다. 역기능 가정은 역기능적 결혼을 창조한다.역기능적 결혼은 역기능적 개인들이 서로를 찾아 결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 역기능 가정의 특징은 부모 간의 연합이 대단히 취약하여 가정에 지도력이나 질서가 없고, 온화하고 따뜻한 사랑의 결여, 일관성 없는 가정 규칙을 따르려는 데서 오는 혼란, 권력 구조적 변화, 왜곡된 의사소통 등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44] 역기능 가정에서 아이의 감정은 정서적으로 결핍된 가족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
> 역기능 가정의 문제를 연구한 존 브래드쇼(John Bradshow)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동섭은 성인아이를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역기능 가정의 특징을 말한다.
>
> **첫째로 역기능 가정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또는 약물 중독자 등에게 주의를 집중한다.** 그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면 '폭군 아이'(King baby)로서 역기능 가정을 다스린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은 중독적이고 충동적인 인격일 가능성이 높다. 폭군처럼 어린아이같이 가족에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강요한다.
>
> **둘째로 역기능 가정은 존재하는 문제를 부인한다.** 역기능 가정에는 공개된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역기능 가정을 얼어붙은 채로 있게 하는 거짓의 한 부분이다. 공개된 비밀에 대해서는 모든 가족이 모르는 척하기로 한다. 중독자는 현실을 부인하고 왜곡하여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적이 없다."우리 집안에는 중독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식구들에게(있는 그대로)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상상할 자유를 주지 않는다.

---

[43] 손현미,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상한 감정 치유방안 연구(상명, 석사, 2010),21-25
[44] 설은주, *가정사역론*,(서울:예영,1997) 161

셋째로 역기능 가정에는 친밀감의 공백이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거리감을 느낀다.

넷째로 역기능 가정의 부모는 수치심이 크다. 그래서 역기능 가정의 자녀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거나 격려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치심을 전가시키므로, 자녀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침으로, 서로를 보살피지 못함으로,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다섯째 역기능 가정은 자녀에게 파괴적이고 경직된 역할을 하게 한다. 가족 체계의 필요에 따라 역할이 생겨난다. 어린 자녀들은 그들의 역기능적 가족 안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방어책을 찾게 된다. 그러나 파괴적이고 경직된 역할을 하게 된다. 속죄양(문제아)은 흔히 가족의 문제에 대 해 비난을 받아 책임을 떠맡게 되며, 속죄양이 된 사람은 가족이 어떤 식으로 낙인 찍느냐 (마스코트,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멍텅구리, 천치, 바보, 사기꾼, 꾀병쟁이, 허풍선이, 약한 녀석)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낸다.[45]

영웅은 가족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대리부모는 정서적으로 부재중인 배우자의 역할을 대행하며,적응을 함으로 대처하는 모범생 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여섯째 역기능 가정의 식구들은 미분화된 가족 자아 집합체로 인하여 감정의 표현을 제한한다."사내 녀석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울지마라", "그 정도 아픈 것은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감정 표현을 제한한다. 역기능 가정의 부모는 그들의 가정을 극단적으로 표현 한다. 감정을 표현하여 부모의 분노를 촉발한 아이는 위로를 받지 못하여 먹는 것이나 텔레비전, 또는 중독으로 도피한다. 자녀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의 감정은 무시된다.

일곱째 역기능 가정은 가족들의 서로의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부모는 서로 격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싸운다. 부모는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다. 개인은 체계 전체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한다.
역기능 가정의 아이들은 너무 일찍 일을 하도록 강요된다. 그들의 일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서가 불안한 성인 들을 돕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부모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사랑하고 한계를 정해주고 지적발달을 격려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의식주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거나, 성에 대한 교육도 태만히 하는 경향이 있다.

여덟째 역기능 가정의 대화는 혼란스럽다. 역기능 가정의 의사소통 스타일 비밀스러움과 불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반복을 특징으로 한다. 역기능 가정에서의 대화는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아무 말을 하든지 소리를 지른다. 의사소통이 간접적이고 애매

[45] Goldnber,Irene& Goldenberg,Herbert,*가족치료,* 장혁표,제봉석,김정택 역,(서울:중앙 적성 출판부,1998) 91.

모호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표현능력이 부족하다. 부모는 실수를 해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아홉째 역기능 가족의 규칙은 경직되어 비인간적, 비타협적이고 바꿀 수가 없다. 일찍이 클라우디아 블랙은 역기능 가정에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규칙을 식별해 낸 적이 있다. "말하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 느끼지 마라"가 그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대개 통제와 완전주의 그리고 비난으로 발전한다.

열번째 역기능 가정은 외부 환경에 대하여 폐쇄적이다. 외부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유적이며 책임전가 적이다.

열한번째 역기능 가정은 갈등과 좌절을 부인한다. 한마디로 절대적이고 과대 망상적이다. **열두번째 역기능 가정은 가족들 사이의 자아 경계가 결여되어 있다.** 피차의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한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공간'을 침범해서 그들의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면 그를 독립시킬 수 없게 된다.

열세번째 역기능 가정의 또 한 가지 속성은 그들이 다세대 과정(multi generational process)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순환된다. 즉 역기능 개인과 결혼하는 역기능 가정의 출신이다. 이 순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성향이 있다. 역기능 가정은 역기능 인간을 만들어 내며 또 다른 역기능적 인간과 결혼하게 함으로 새로운 역기능 가정을 낳는다.[46]

햄펠트,미너스,마이어(Hemfelt,Minirth,Meier)[47] 에 의하여 이것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커다란 감정적인 진공상태를 알 수 있다. 문제 가정은 모든 정력을 소모하며 막상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하나도 남지 않은 가정이다. 역기능 가정은 역기능 가정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할 점은 위의 열세번째 특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기능 가정이 다세대 과정, 즉 윗 세대에서 아랫 세대로 이어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윗 세대가 역기능 가정이면 그들의 자녀의 가정도 결국 역기능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현세대에서

46 정동섭,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서울:요단출판사,1996) 105-115
47 Robert Hend 7th, Frank Minirth, Paul Meier, *사랑은 선택*, 예수전도단 역,(서울:예수전도단, 1997), 14-15

회복을 통해 끊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세대에서 회복을 통해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이후의 대를 순기능 가정으로서의 다세대 과정, 순기능 가정이 이어지는 순환과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순기능 가정 또한 역기능 가정과 동일하게 순기능 가정을 낳는다.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도 회복사역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확인된다 하겠다.

부모회복학교(HMMS)에서 정리한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48]

〈표 4〉 부모회복학교(HMMS)에서 정리한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의 특징

순기능 가정 특징	역기능 가정 특징
• 무조건적 사랑 • 은혜와 긍휼 • 권한 부여 • 깨끗하고 공정한 싸움 • 경계선 적절 • 친밀한 관계 • 예수 그리스도 중심	• 조건적 사랑 • 수치를 줌 • 조종과 통제 • 더럽고 치사한 싸움 • 경계선 없음 • 멀어진 관계 • ‘나’ 중심적 패턴

순기능 가정은 “무조건적 사랑”, “은혜와 긍휼”, “권한 부여”, “깨끗하고 공정한 싸움”, “적절한 경계선”, “친밀한 관계”가 있는 가정,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다. 역기능 가정은 “조건적 사랑”, “수치를 줌”, “조종과 통제”, “더럽고 치사한 싸움”, “경계선 없음”, “멀어진 관계”의 가정이다. 특별히 “나 중심”의 가정이다.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냐 아니면 나 중심의 가정이냐라는 것이다. 특별히 회복사역을

[48] 낮은울타리 부모회복학교(HMMS) 오리엔테이션 강의 PPT

통해 역기능가정에서 순기능 가정으로의 변화를 이루어 갈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나 중심적인 패턴에서 가족 구성원의 한명 한명이 예수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돕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체 가정이 예수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부모회복학교에서의 다림줄 강의는 하나님이 기준 되고, 예수그리스도 중심의 개인과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통찰을 주게 된다.

역기능 가정은 '나' 중심적 패턴으로 나자신의 다림줄을 고집함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다림줄로 가게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다림줄로 가게 됨으로 서로의 간격이 커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가며 멀어진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사역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을 통해 가족 구성원 한명 한명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림줄(기준)으로 변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림줄(기준) 안에서 서로 하나되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다.

C. 개인의 영적회복

여기에서는 두번째 핵심 연구 과제인 개인의 상처로부터의 치유와 회복 중 상처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은 앞의 신학적 배경에서 다루었기에 영적 회복 부분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고자 한다.

1. 영적회복을 통한 관계회복

우리의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까지 이루어 간다. 김경수는 그의 책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49]

> 내적치유는 자신의 영적인 부분과 마음, 그리고 육체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피조물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우리는 회복사역을 통하여서 마음과 상처의 뿐 아니라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야 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앞에서 비움과 채움에서도 다룬 바와 같이 상처를 비워내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경수는 인간의 전인적 회복에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한다.[50]

> 인간의 전인적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상호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동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회복은 인간의 전인적인(holistic recovery) 회복이다. 상처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영적회복이 이루어지면 이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한 인간상호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

[49] 김경수, *성경적 내적치유*(용인 : 목양, 2010), 275
[50] 김경수, *성경적 내적치유*(용인 : 목양, 2010), 275

하며 그렇게 회복된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설 수 있다.

2.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은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다. 부모회복학교(HMMS)에서도 직면그룹에서 한 명의 직면이 끝날 때마다 직면그룹 리더는 한주간 그룹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한 성경구절을 적어 말씀 확언 카드를 주는 시간을 가진다. 놀랍게도 기도로 준비했기에 그룹원에게 딱 맞는 말씀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이 말씀을 통해 직면기도를 통한 회복과 더불어 말씀을 통한 회복과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라 베이커는 그가 교제 "프라소"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한다. [51]

>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악한 계략이나 생각들을 제거하고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하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유용성으로 회복됩니다. 이 성장을 치유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죄로 찌든 당신의 질병에 그분의 말씀을 적용하신다면, 당신은 치유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된 삶으로부터 찬란한 아름다움이 빛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제 역할을 하며 영적인 회복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로라 베이커는 이렇게 말한다. [52]

> 당신은 죄악된 생각을 벗어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당신의 선택 결정자(당신의 의지)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진리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

[51] Laura L. Baker. *프라소*. 서울 : 서울유에스에이, 2009, 42-43

[52] Laura L. Baker. *프라소*. 서울 : 서울유에스에이, 2009, 136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죄악된 생각과 상처를 비워냄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브루스 & 바버라 탐슨은 그들의 책 마음의 벽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한다. [53]

>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한다(요 8:32). 더 많은 진리가 우리 삶에 들어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더 자유케 될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브루스&바버라 탐슨의 말처럼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가 들어올수록 우리는 더 자유케 될 것이다. 상처로 부터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도, 잘못된 관계로 부터도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상처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은 함께 가는 것이며 서로 시너지를 낸다. 또한 이는 건강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회복사역 가운데 늘 염두해 두고 지향해야할 방향성이다.

---

[53] Bruce Thompson, Barbara Thompson. *내 마음의 벽*, 정소영 역, 서울 : 예수전도단, 2011, 74

IV. 연구 방법론

본장에서는 먼저 부모회복학교(HMMS)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연구의 대상과 절차, 연구 도구인 평가 설문지 및 설문결과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회복학교 효과를 알아보고자 8 주과정 프로그램의 처음 참가자와 두 번 이상 참가자의 참여자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나이에 따른 부모회복학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50 세 이하 참가자를 분리해서 8 주과정 프로그램의 처음 참가자와 두 번 이상 참가자의 참여자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A. 부모회복학교(HMMS)

먼저 부모회복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요

부모회복학교(HMMS)의 목적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면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고 자녀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 가기 위해 순기능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부모회복학교(HMMS)는 8주 과정의 프로그램이며, 참가자는 일주일에 한번 2:30-3:00시간 길이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매주 주요 프로그램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 강의, 직면기도 소그룹(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소그룹대신 개인 직면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HMMS 허깅, 가족에게 용서와 사랑의 편지쓰기, 말씀확언카드 등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화상앱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내용은 부모회복학교(HMMS) 리더 매뉴얼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커리큘럼, 진행 타임테이블, 강의 내용 및 액티비티, 각 액티비티 및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커리큘럼[54]

부모회복학교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제1강 자녀를 살리는 부모 회복학교, 흠스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1주차 직면그룹활동 | 큐큐(4가지 질문 – 나의 유년시절, 가장 추웠던 기억, 가장 따뜻했던 기억, 기도제목)

제2강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2주차 직면그룹활동 | 흠스 멤버가 알아야할 9가지 질문과 답

제3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3주차 직면그룹활동 | 직면프랙티스

제4강 라비앵 로즈–장밋빛 인생. 그러나 당신은 부재중

4주차 직면그룹활동 | 직면프랙티스

제5강 다림줄1–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다림줄

5주차 직면그룹활동 | 직면프랙티스

제6강 다림줄2–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다림줄과 정체성

6주차 직면그룹활동 | 직면프랙티스

제7강 중독–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7주차 직면그룹활동 | 용서의 편지쓰기

---

54 신상언, *직면* (서울 : 낮은울타리, 2017), 211

제8강 수료식-흠스, 그 축복의 샤워가 내리던 곳에서의 만남

수료식 | 사랑의 언어 왕관 만들기 | 전리품 나무 만들기

3. 매주 진행 Time table(7~10시, 3시간 기준)

아래는 부모회복학교의 Time Table 이다.

〈표 5〉 부모회복학교 Time Table

시간(오후)		프로그램	담당자	비고
7:00~7:20	20	지성소 예배 전신갑주 선포 기도	예배 인도자	반주자
7:20~7:30	10	광고	SD	
7:30~8:30	60	강의	영상 담당	
8:30~8:40	10	흠스 허깅	사진 담당	
8:40~10:00	80	직면 그룹 모임 - 직면 등	EL(Encounter Group Leader)	

4. 강의 내용 및 액티비티

아래는 매주 진행되는 강의의 핵심 내용 및 액티비티, 각 직면 그룹(Encounter Group)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가져가 직면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직면시간은 부모회복학교가 오프라인으로 진행 될 때는 직면그룹과 함께 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진행 될 때는 각자가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께 일대일로 직면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 하게 된다. 단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도 첫 주의 QQ를 통한 나눔 시간은 화상앱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통해 직면그룹과 함께 나눔을 진행하게 된다.

〈표 6〉 부모회복학교 강의 내용 및 액티비티

주	강의주제	강의내용 및 액티비티	직면할 내용
1주	자녀를 살리는 부모 회복학교, 흠스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 직면은 위대한 선택.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상처의 통로가 될 것인가? 주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짐을 방해하는 상처와 욕망의 문제를 예배와 기도로 다루는 학교이며 병원. 액티비티-입학식	*케이퀴 성도들이 모일 때 함께 나누었던 질문인 큐큐(Q.Q)로 자기 소개 1.나의 이름과 유년시절 2. 나의 가장 추웠던 기억 3. 나의 가장 따뜻했던 기억 4. 나의 기도제목
2주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구원이란 약속에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 는 감격스런 과정. 구원 얻은 후에도 생명력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요한복 음 10장 10절에 명확히 말씀. 생명력은 회복된 이후에 주어지는 선물. 치유가 부분적이라면 회복은 전인적.	* 워크숍 1. 구원 얻은 후에도 생명력이 필요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근거하여자신의말로설명해보세요.
3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모습과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나의 모습을발견하는시간. 내 육신의아버지와성품이 다르신, 하나 님 아버지의 잃은 양을 향해 애타게 부르시는그 큰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1. 오늘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것은무엇입니까? 2.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비교했을 때 어떤차이점이 있습니까?
4주	라비앵로즈 장밋빛인생 그러나 당신은 부재중	역기능 가정은 대화가 없는 가정. 아버지 부재, 어머니 부재인가정. 역기능가정에서자란사람이 역기능 부모가 되기 쉬운 이유는? 역기능 부모가 순기능 부모로 바뀌는 길은 직면뿐. 상처의 통로에서 축복의 통로로, 상처 입은 짐승에서 상처입은 간호사로 서게 해 주소서. 액티비티-자녀(혹은 부모)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1. 나의 원 가정과 관련하여 주님이 직 면하라고하시는것은? 2.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준 사람과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감정을 직면
5주	다림줄1. 회복에대한 사랑의약속 하나님의 다림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안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쉽다. 이번 강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고유 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 정체성을찾는귀중한시간	1.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것은? 2. 거절과반항의 벽돌들중 내가 많이 가 지고 있는 벽돌은? 십자가앞에서 그 벽돌을 허물어 달라고 기도
6주	다림줄2. 우리들의 행복한시간 다림줄과 정체성	수동성 다림줄과 반항성 다림줄에 속한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살펴보고 나 또는 내 자녀는 어떤 유형의 사 람인지? 직면을 방해하는 숨겨진 내안의 벽돌들. 상처 보기	1.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는것은? 2.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나? 3. 어린시절 사랑 받지 못했던 경험은?
7주	중독, 밑이터진 웅덩이를 파는사람들	중독의 원인이 되는 뿌리와 토양을 알고 그것을 통해 맺히게 되는 열매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기. 중독의 세 가지 원인-상처와 욕망과 대체물이N세대에게 미치는 영향. 중독의사이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 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가기.	1. 나 또는 내 자녀를 중독으로 몰고 가는 문제는? 2. 중독성 테스트를 통해 나 또는 자녀의 상태를 점검 *액티비티-나에게 영향을 준 권위자에게 용서의 편지 쓰기
8주	수료식. 그축복의 사워가 내리던 곳에 서의만남	액티비티-사랑의 언어 왕관, 전리품 나무 만들기	1. 이번 흠스를 통해 나와 자녀는 얼마나 건강해 졌나? 2. 이번 흠스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전리품(은혜)은?

부모회복학교를 진행하면서 미디어 등에 심각하게 중독된 이들 등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부모회복학교의 사역자가 일대일 만남을 통해 회복을 돕거나, 신앙에 기반해서 추가적인 상담과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연결하기도 한다.

5. 각 액티비티(Activity) 및 의미

아래는 부모회복학교의 각 액티비티 및 의미이다.

1) 직면 세리머니

직면을 한 지체를 마음껏 축복하고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그룹 안에서 이 세리머니를 할 때 지체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고 역동성이 일어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리머니는 한 사람씩 직면할 때마다 합니다. 직면 그룹 리더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인도와 이 직면 세리머니가 성령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 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❶ 중보 기도 : 직면자의 직면이 끝나자마자 "사랑합니다","직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후 모두 다가가 손을 얹거나 껴안고 중보 기도 해줌

❷ 축복 : 기도가 끝나면 축복송 불러주며 한 사람씩 돌아가며

❸ 흠스 허깅

❹ 말씀의 확언確言 : 흠스 허깅 후 리더는 한 주간 내내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며 받은 말씀을 카드에 적어두었다가 이 시간 읽어 주고 전달하며 축복함

2) 흠스 허깅

❶ 두사람이 서로 마주 봅니다.

❷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아래로 하고 서로의 심장이 닿게 꼭 껴안습니다.

❸ 상 대방의 심장 뛰는 소리를 10 초 동안 들으며 상대방을 위하여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❹ 10 초 후"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상대방만 듣도록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 흠스에서는 4 명 이상 흠스 허깅을 합니다.

3) 저널 쓰기 (Journal)

저널을 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단지 기록으로 끝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널은 흠스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신부로 살며 그

사랑의 기쁨을 적어 두는 나만의 비밀 일기장입니다.

1) 저널의 목적

•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훈련의 효과를 높인다.

•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 학교 진행 과정에 내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관찰하도록 한다.

2) 유익한 점

• 리더를 통해 훈련 과정을 점검받을 수 있다.

• 훈련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도움이 된다.

• 개인적인 훈련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유의 할 점

•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정리해서 저널에 표현한다.

• 구체적인 실습들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오픈한다.

4) 저널의 형식

(1)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 첫 번째 저널 쓰기 시간에는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적는다.

(2) 강의 내용 정리하기

① 새로운 생각들 : 새롭게 배우게 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② 확정된 생각들 : 내 마음에 확정된 내용

③ 나의 프랙티스Pract ice

ㄱ. 강의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프랙티스 Practice할 것인가?

ㄴ. 강의의 어떤 도구들이 중독에 빠지기 쉬운 N세대를 도울 수 있겠는가?

ㄷ. 무엇을 직면할 것인가?

4) 큐큐 – Q.Q / Quaker Question

QQ는 직면이 아닙니다. QQ는 오래 전부터 퀘이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자 신들의 삶을 나누기 위해 사용했던 질문들입니다. 교회사敎會史에 전해 내려오는 이 질문들을 오늘 우리도 사용하여,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대개 처음 만남은 어색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 이 아니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와 지체 의식을 가진 형제자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을 통해 지체들 상호 간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서로를 위한 중보 자로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QQ는 리더 훈련 때나 학교의 첫 모임 시간. 혹은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게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큐큐의 핵심

© 나의 이름은 □□□이며, 나의 유년 시절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 살아오는 동안 나의 가장 추웠던 기억은?

© 살아오는 동안 나의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④ 이번 흡스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 제목은?

5) 문지기 기도(릴레이 기도)

학교 시작 전부터 학교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리더들에 의해서 쌓여지는 기도의 성벽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학교를 지키라는, 리더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기도 합니다.[55]

---

[55] 부모회복학교(HMMS) 리더 매뉴얼

B. 연구대상과 연구 절차

부모회복학교(HMMS) 과정을 만든 선교단체 낮은울타리가 주최한 8 주간의 부모회복학교(HMMS)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자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 및 미국과 호주 등의 한국인 이민자 성인 들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을 감안하여 모든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하기에 동의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부모회복학교가 시작될 때 한번, 마친 후 한번 익명으로 주어진 설문에 답하도록 함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익명으로 하는 대신 생일의 월일, 네 자리 숫자 코드 방식을 활용 사전검사자와 사후검사자를 일치시켰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을 감안하여 인터넷으로 설문이 주어지고 답하도록 했다. 본 설문지의 모든 정보들은 절대 비밀이 보장이 됨과 작성된 설문 내용은 연구자만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크게 두집단을 나누어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번째 집단은 부모회복학교 8 주과정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총 29 명이 사전, 사후 설문에 참여하였다. 두번째 집단은 부모회복학교 8 주과정에 두번 이상 참석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총 23 명이 사전, 사후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 특성을 두 집단별로 나누어서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부모회복학교 처음 참석자 기본특성(총 29 명)

구분		빈도(명)	비율(%)	누적율(%)
성별	남	1	3.5	3.5
	여	28	96.5	100
연령	만 20-30 세	1	3.5	3.5

	만 31-40 세	4	13.8	17.3
	만 41-50 세	13	44.8	62.1
	만 51-60 세	7	24.1	86.2
	만 61 세 이상	4	13.8	100
거주국가	한국	18	62.0	62.0
	미국	9	31.0	93.0
	호주	1	3.5	96.5
	파라과이	1	3.5	100
결혼생활	5 년 이하	1	3.5	3.5
	6-10 년	1	3.5	7.0
	11-20 년	12	41.3	48.3
	21-30 년	5	17.2	65.5
	31 년 이상	6	20.7	86.2
	사별이나 이혼	2	6.9	93.1
	미혼	2	6.9	100
자녀	1 명	4	13.8	13.8
	2 명	16	55.1	68.9
	3 명	6	20.7	89.6
	4 명 이상	1	3.5	93.1
	없음	2	6.9	100
신앙경력	1-5 년	0	0	0
	6-10 년	0	0	0
	11-20 년	7	24.1	24.1
	21-30 년	4	13.8	37.9

	31 년 이상	18	62.1	100
몇대째 신앙가정	내가 일대	11	37.9	37.9
	내가 이대	8	27.6	65.5
	내가 삼대	6	20.7	86.2
	내가 사대 이상	4	13.8	100
직분	성도	5	17.2	17.2
	집사	12	41.4	58.6
	권사	6	20.7	79.3
	장로	0	0	79.3
	교역자	6	20.7	100

〈표 8〉 부모회복학교 두번 이상 참석자 기본특성(총 23 명)

구분		빈도(명)	비율(%)	누적율(%)
성별	남	1	4.3	4.3
	여	22	95.7	100
연령	만 20-30 세	1	4.3	4.3
	만 31-40 세	4	17.4	21.7
	만 41-50 세	11	47.8	69.5
	만 51-60 세	3	13	82.5
	만 61 세 이상	4	17.4	100
거주국가	한국	17	73.9	73.9
	미국	6	26.1	100
결혼생활	5 년 이하	0	0	0
	6-10 년	2	8.7	8.7

	11-20 년	12	52.2	60.9
	21-30 년	3	13	73.9
	31 년 이상	4	17.4	91.3
	사별이나 이혼	1	4.3	95.6
	미혼	1	4.3	100
자녀	1 명	0	0	0
	2 명	14	60.9	60.9
	3 명	8	34.8	95.7
	4 명 이상	0	0	95.7
	없음	1	4.3	100
신앙경력	1-5 년	1	4.3	4.3
	6-10 년	1	4.3	8.7
	11-20 년	2	8.7	17.4
	21-30 년	4	17.4	34.8
	31 년 이상	15	65.2	100
몇대째 신앙가정	내가 일대	7	30.4	30.4
	내가 이대	7	30.4	60.8
	내가 삼대	8	34.8	95.6
	내가 사대 이상	1	4.3	100
직분	성도	5	21.7	21.7
	집사	13	56.5	78.2
	권사	3	13	91.2
	장로	0	0	91.2
	교역자	2	8.7	100

눈에 띄는 점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는 것이다. 두 집단 모두 남자는 각각 1명씩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모회복학교를 섬기면서 압도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교회 및 한인교회의 성도의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성들은 본인은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내어놓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C. 연구도구 (평가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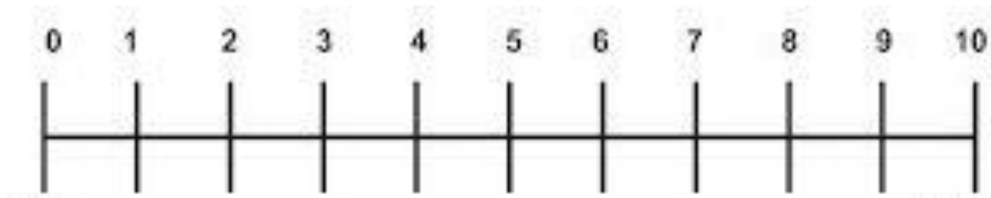
연구과제 1 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 있는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Ⅱ(Korea Family Strengths Scale Ⅱ)'와 가족의 영적인 면에서의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접 만든 '영적 가족 강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질문 2 를 검증하기 위해서 Peter Scazzero & Warren Bird 의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수록된 '정서적 건강을 진단하는 척도'와 한국에서 Dr. Chan Lee 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 성숙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외에 추가적 질문으로 10 점 척도를 활용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 중 어디에 더 가까운 지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좋음, 나쁨 정도, 본인의 상처 정도를 물어서 사전, 사후의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후 설문지에서는 크게 두가지 부분을 추가하였다. 첫번째로는 10 점 척도의 항목 중 세개의 항목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추가해서 그렇게 점수를 매긴 이유를 물어보았다.

1. 현재 본인의 가정은 역기능 가정 vs 순기능 가정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가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록 높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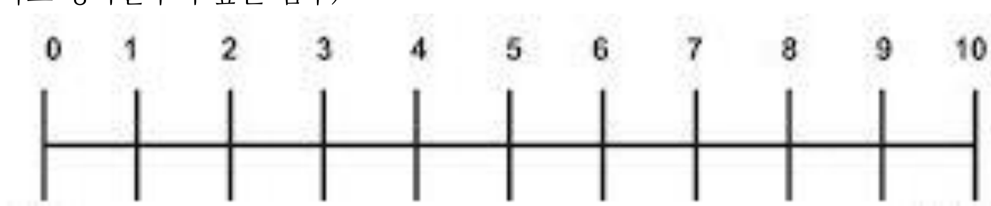


역기능 가정 보통 순기능가정

1-1 이번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역기능가정, 순기능 가정 정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를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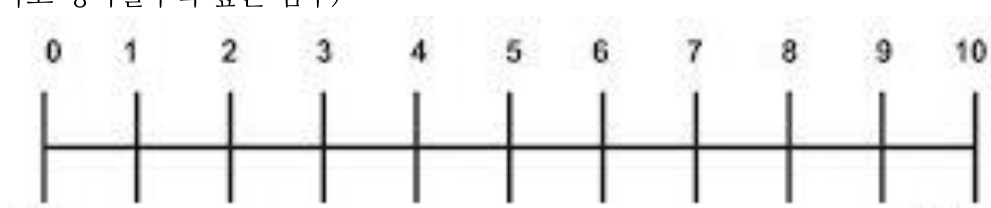
[ ]

2. (결혼했을 경우) 본인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관계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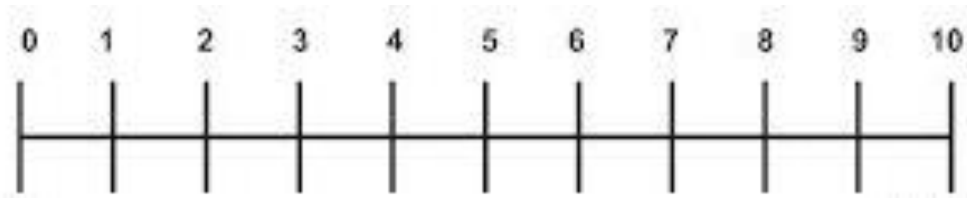
매우나쁨 보통 매우좋음

3.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은 현재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관계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매우나쁨 보통 매우좋음

4.본인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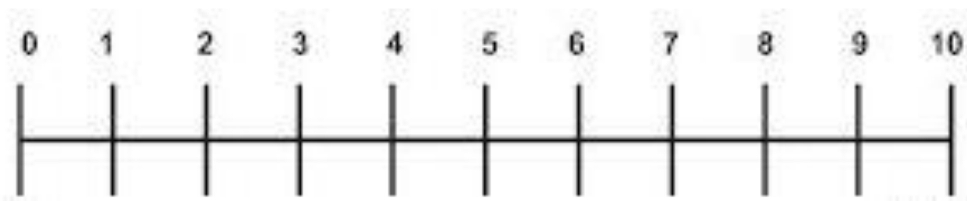


매우나쁨 보통 매우좋음

4-1. 이번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를 적어주세요.

[ ]

5. 본인은 현재 마음의 상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처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전혀없음 보통 매우많음

5-1. 이번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상처 정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를 적어 주세요.

[ ]

두번째로는 부모회복학교 8 주 과정을 마친 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질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다.

부모회복학교 평가 질문

1. 부모회복학교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을 꼽는다면?

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② 강의 ③ 직면 기도 ④ 기타( )

1-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2. 8개의 강의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는(택1)?

제 1 강) 자녀를 살리는 부모 회복학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 2 강)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

제 3 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 4 강) 라비앵 로즈-장미빛 인생. 그러나 당신은 부재중

제 5 강) 다림줄 1 - 회복에 대한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다림줄

제 6 강) 다림줄 2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다림줄과 정체성

제 7 강) 중독 -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제 8 강) 수료식 - 그 축복의 샤워가 내리던 곳에서의 만남

2-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3. 이번 부모회복학교(HMMS)를 통한 자신의 변화를 적어 주세요.

[ ]

4. 이번 부모회복학교(HMMS)를 통한 가족(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의 변화를 적어 주세요.

[ ]

5. 이번 부모회복학교(HMMS)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① 매우 안 좋았다 ② 안 좋았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았다 ⑤ 매우 좋았다.

5-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V. 연구결과 및 논의

A. 연구결과

먼저 처음 참가자 29명의 사전, 사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음 참가자(29 명)의 사전- 사후 설문 결과

부모회복학교에 처음 참여한 참가자 29 명의 사전, 사후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처음 참가자 사전, 사후 설문 결과 분석

측정도구	사전	사후	차이	차이 %
	M(평균)	M(평균)		
가족건강성(총점 110)	78.24	79.93	1.69	1.53%
신앙적 가족건강성(총점 60)	38.86	40.97	2.10	3.50%
정서적 건강(총점 96)	71.69	73.24	1.55	1.62%
영적 성숙도(총점 132)	115.62	117.31	1.69	1.28%
현재 본인의 역/순기능 가정(10 점 척도, 가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점수)	5.79	6.17	0.38	3.79%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10 점 척도, 관계가 좋다고 생각 할수록 높은 점수)	5.85	6.44	0.59	5.92%
현재 자녀와의 관계(10 점 척도, 관계가 좋다고 생각 할수록 높은 점수)	7.26	7.44	0.19	1.85%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10 점 척도, 관계가 좋다고 생각 할수록 높은 점수)	7.41	7.76	0.34	3.45%
현재 마음의 상처(10 점 척도, 상처가 많다고 생각 할수록 높은 점수)	5.66	4.55	−1.10	−11.03%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모든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가 더 좋아진 것이다. 현재의 마음의 상처 부분은 제외하고는 높을수록 더 좋은 결과인데 모든 항목에서 사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특별히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5.92% 더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고, 마음의 상처에 대한 것은 11.03% 상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2. 처음 참가자(29 명)의 사전 – 사후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처음 참가자의 부모회복학교 효과를 알아보고자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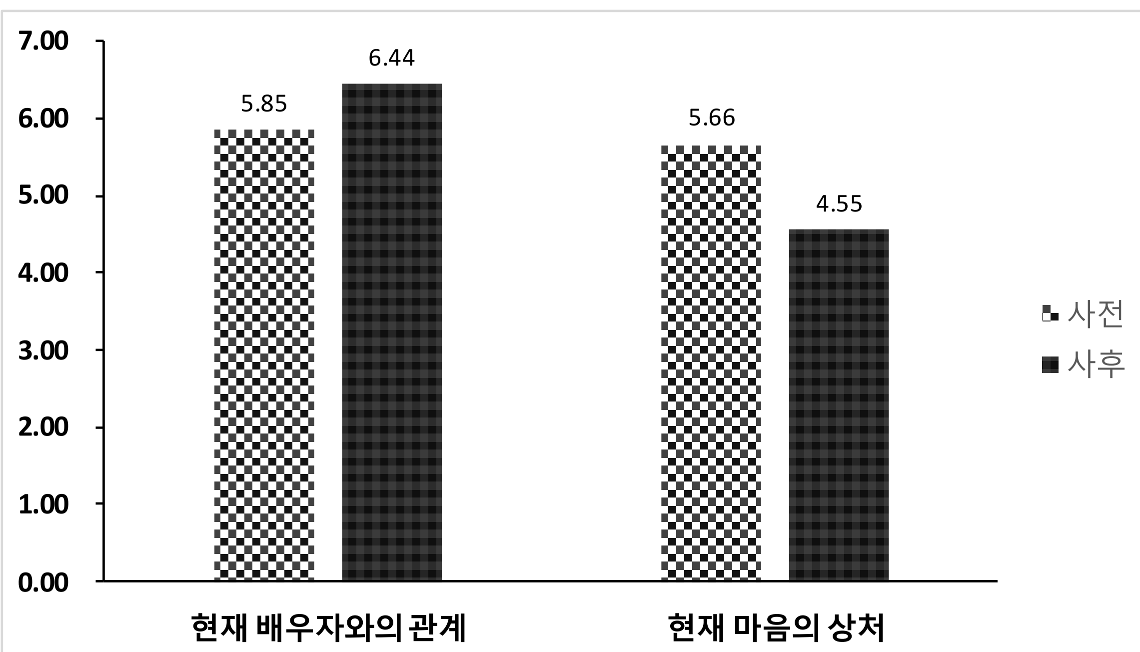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t=-2.30, p=0.030)은 사전-사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6.44±2.98)가 사전(5.85±3.21)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회복학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음의 상처(t=3.04, p=0.005)은 사전-사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4.55±2.59)가 사전(5.66±2.82)보다 낮게 나타나 부모회복학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t=-0.93, p=0.362), 신앙적 가족건강성(t=-1.53, p=0.137), 정서적 건강(t=-1.26, p=0.218), 영적 성숙도(t=-1.34, p=0.193), 현재 본인의 역/순기능 가정(t=-0.94, p=0.353), 현재 자녀와의 관계(t=-0.55, p=0.588),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t=-1.47, p=0.152)에서는 사전-사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처음 참가자 사후 대응 표본 T-검정

측정도구	사전		사후		t	p
	M	SD	M	SD		
가족건강성	78.24	15.11	79.93	16.96	−0.93	0.362
신앙적 가족건강성	38.86	13.65	40.97	12.82	−1.53	0.137
정서적 건강	71.69	10.13	73.24	11.05	−1.26	0.218
영적 성숙도	115.62	10.74	117.31	9.51	−1.34	0.193
현재 본인의 역/순기능 가정	5.79	2.54	6.17	2.17	−0.94	0.353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5.85	3.21	6.44	2.98	−2.30	0.030
현재 자녀와의 관계	7.26	2.33	7.44	2.26	−0.55	0.588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7.41	1.92	7.76	1.55	−1.47	0.152
현재 마음의 상처	5.66	2.82	4.55	2.59	3.04	0.005

처음 참가자의 사전-사후 T-검정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배우자와의 관계 및 마음의 상처부분을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처음 참가자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현재 마음의 상처 변화 그래프



처음 참가자의 사전-사후 T 검정 결과로는 “연구과제 1: 부모회복학교(HMMS)가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과제 2: 부모회복학교(HMMS)가 개인의 상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는가?”에서는 개인의 상처 회복 부분이 10점척도를 통해 상처회복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정서적 건강도, 영적 성숙도 척도를 통해서는 이부분이 검증되지 않았다.

3. 두 번 이상 참가자(23 명)의 사전- 사후 설문 결과

부모회복학교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참가자 23명의 사전, 사후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두 번 이상 참가자 사전, 사후 설문 결과 분석

측정도구	사전	사후	차이	차이 %
	M(평균)	M(평균)		
가족건강성(총점 110)	81.96	86.00	4.04	3.68%
신앙적 가족건강성(총점 60)	41.87	43.70	1.82	3.04%
정서적 건강(총점 96)	74.91	75.87	0.96	1.00%
영적 성숙도(총점 132)	114.91	117.70	2.78	2.11%
현재 본인의 역/순기능 가정(10 점 척도, 가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6.35	6.57	0.21	2.17%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10 점 척도, 관계가 좋다고 생각 할수록 높은 점수)	7.25	7.70	0.45	4.5%

현재 자녀와의 관계(10 점 척도, 관계가 좋다고 생각 할수록 높은 점수)	7.27	7.68	0.41	4.09%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10 점 척도, 관계가 좋다고 생각 할수록 높은 점수)	7.87	8.35	0.48	4.78%
현재 마음의 상처(10 점 척도, 상처가 많다고 생각 할수록 높은 점수)	4.87	4.43	-043	-4.30%

두 번 이상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로도 모든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가 더 좋아졌다. 10 점 척도로 살펴본 배우자,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도 4.5%, 4.09%, 4.78%의 개선효과로 약 평균 4% 이상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상처 또한 4.30% 줄어든 효과를 보여주었다.

4. 두 번 이상 참가자(23 명)의 사전 - 사후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두 번 이상 참가자의 부모회복학교 효과를 알아보고자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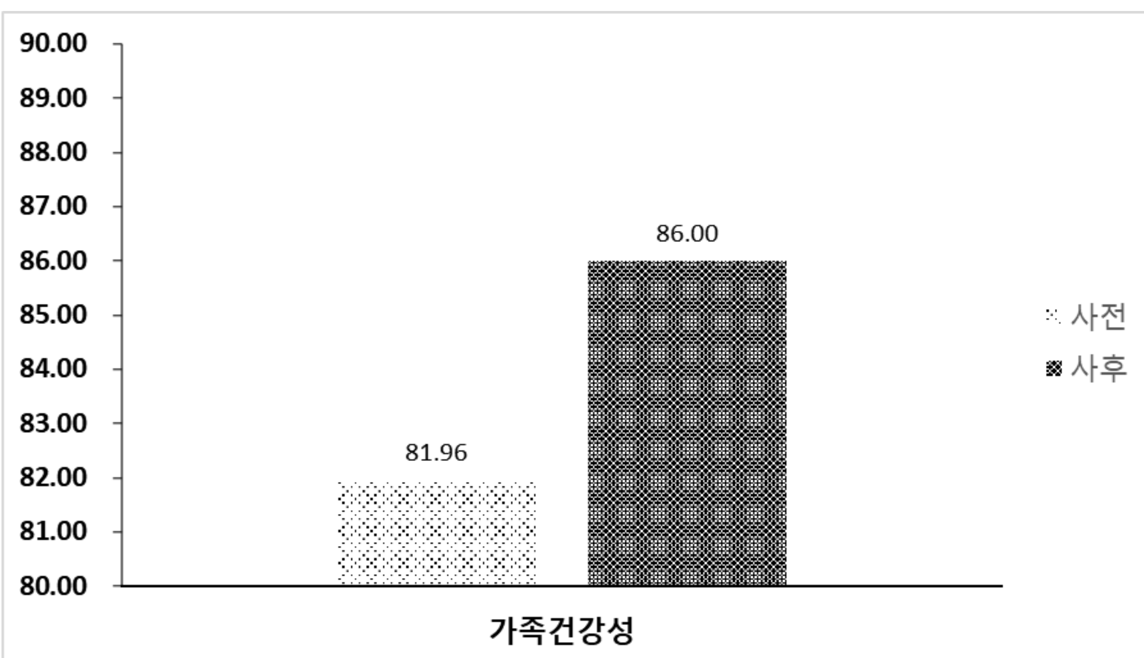
가족건강성(t=-2.22, p=0.037)은 사전-사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86.00±10.82)가 사전(81.96±14.43)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회복학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적 가족건강성(t=-1.09, p=0.289), 정서적 건강(t=-0.75, p=0.461), 영적 성숙도(t=-1.52, p=0.144), 현재 본인의 역/순기능 가정(t=-0.60, p=0.553),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t=-1.48, p=0.154), 현재 자녀와의 관계(t=-1.14, p=0.266),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t=-1.75, p=0.094), 현재 마음의 상처(t=0.92, p=0.369)에서는 사전-사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두 번 이상 참가자 사후 대응 표본 T-검정

측정도구	사전		사후		t	p
	M	SD	M	SD		
가족건강성	81.96	14.43	86.00	10.82	−2.22	0.037
신앙적 가족건강성	41.87	12.79	43.70	9.82	−1.09	0.289
정서적 건강	74.91	9.53	75.87	8.09	−0.75	0.461
영적 성숙도	114.91	9.96	117.70	8.69	−1.52	0.144
현재 본인의 역/순기능 가정	6.35	2.57	6.57	2.25	−0.60	0.553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7.25	1.92	7.70	1.56	−1.48	0.154
현재 자녀와의 관계	7.27	2.27	7.68	1.17	−1.14	0.266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7.87	1.36	8.35	0.98	−1.75	0.094
현재 마음의 상처	4.87	2.36	4.43	1.85	0.92	0.369

두 번 이상 참가자의 사전-사후 T-검정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가족 건강성 부분을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두 번 이상 참가자 가족건강성 변화 그래프



두 번 이상 참가자의 사전-사후 T 검정 결과로는 “연구과제 1: 부모회복학교(HMMS)가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에서 가족 건강성 척도를 통해서는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하 10점 척도 질문 및 그 이유에 대한 응답 분석, 부모회복학교 사후에 실시한 종합 평가에 대한 응답 분석은 부모회복학교를 처음 접해서 좀더 객관점인 평가가 가능한 처음참가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5. 처음 참가자(29명)의 역기능 가정 vs 순기능 가정 10점 척도 및 그 이유와 변화 분석

“현재 본인의 가정은 역기능 가정 vs 순기능 가정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가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록 높은 점수)라는 10점 척도 질문의 답변과 “이번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역기능가정, 순기능 가정 정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를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의 답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0점척도를 기준으로 점수가 더 높아진 경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가 낮아진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다.

〈표 13〉 [역기능가정 vs 순기능 가정]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

전	후	[역기능가정 vs 순기능 가정]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
전보다 후가 점수가 높아진 경우(12명, 41.4%)		
3	5	**남편과 자녀를 더 이해하게 됨**

5	7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도표를 통해 내 안에 깊은 쓴뿌리들을 들추어 냄으로 **가족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조금씩 바뀌었다**
9	10	원래 우리 가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3	5	상처의 원인과 나타난 결과를 알게 되었으므로 **가족구성원의 문제점을 좀 더 정확히 볼 수있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3	5	내 자신이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나를 돌아 보게된 것**
4	7	인지하여 **고치려고 노력한다 것**
7	10	직면기도의 횟수가 늠
3	5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0	1	지금 현재는 역기능가정 변화 없음
6	9	**자녀를 대할 때 한번 더 생각하고 대하게 됨**
4	5	**내 모습을 정확히 볼수 있게 됨**. 순기능가정을 향해
전과 후 점수가 동일한 경우(9명, 31%)		
9	9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 보냄으로 그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
9	9	없었습니다. 그러나 흠스가 필요한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3	3	**내 잘못을 아들에게 용서 빌었다. 아들은 이해한다고 해 주었다.**
8	8	나와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
8	8	**자녀와의 소통**
7	7	나의 마음이 기본 틀을 재발견함. 지금 내 가정의 건강을 위해 지성소 기도를 통해 주님께 직면 토설함으로 **모든 일에 담대함을 가지게 됨**
7	7	**부모님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들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습니다 서로 이해하시려는 모습으로
5	5	사단에게 속았던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연합됨을 계속 인식하려고 하는** 것
8	8	알게 모르게 행동하는 생활의 습관과 영적 잘못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되었다
전보다 후가 점수가 낮아진 경우(8명, 27.6%)		
7	5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5	4	**역기능 가정임을 깊이 인식함**
7	6	**나의 말하는 투가 조금씩 차분하게 변화되고 있다.**
7	5	변화가 없었음
6	5	변화 없음
6	3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은 커졌으나 남편과의 변화는 더 나빠졌다. 이유는 남편에게 용서의 편지를 보냈는데 남편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 관계의 불편함이 크다.
8	6	**나의 회복**
10	5	순기능이지만 대화가 더 살아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 참가자 29명 중 역기능 vs 순기능 10점 척도 점수에서 전보다 후 점수가 더 높아진 사람은 전체의 41.4%인 12명이였다. 전과 후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31%인 9명, 전보다 후가 점수가 낮아진 경우는 27.6%인 8명이였다. 전반적으로 가족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거나, 가족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 라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도 여럿 있었다.

여기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지점은 전보다 후 점수가 낮아진 사람이 8명, 27.6%가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실제로 가정이 부모회복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더 역기능화 되었다기 보다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역기능가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게 됨으로 역기능 가정에 대한 체감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이들 중 두사람은 변화가 없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후 점수는 사전보다 2점 혹은 1점을 더 낮게 적었다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기능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 자신 가정의 역기능성을 더 크게 느끼고 점수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근거로 위 표의 세번째 경우 두번째 응답자도

"역기능 가정임을 깊이 인식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응답자도 동일하게 사전보다 사후점수가 1점 낮게 표기되었다. 이렇게 점수가 표기되어 사후 점수의 전체 평균점수가 낮아진 것이 숫자적으로 드러나는 사전, 사후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통계적 분석으로서 유의미한 변화의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더 높아진 12명(41.4%)을 포함 전반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역기능 가정이 순기능 가정으로의 변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사전보다 사후의 점수를 낮게 표기한 세번째 부류의 가정의 경우 비록 가정이 순기능가정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정의 역기능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순기능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6. 처음 참가자(사별 및 이혼, 미혼을 제외한 26명)의 배우자와의 관계 10점 척도 및 가족(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의 변화 분석

"(결혼했을 경우) 본인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관계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라는 10 점 척도 질문의 답변과 "이번 부모회복학교(HMMS)를 통한 가족(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의 변화를 적어 주세요. 함께 참고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은 현재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관계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라는 10 점 척도의 사전, 사후 점수도 그래프에 함께 넣었다.

배우자와의 관계 10점척도를 기준으로 점수가 더 높아진 경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가 낮아진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다. 사별혹은 이혼(1명), 미혼(2명)으로 점수를 표기하지 않은 세명은 제외한 26명에 대한 분석이다.

〈표 14〉 부모회복학교(HMMS)를 통한 가족(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의 변화

배우자 관계 전	**배우자 관계 후**	자녀 관계 전	자녀 관계 후	**부모회복학교(HMMS)를 통한 가족(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의 변화**
전보다 후가 점수가 높아진 경우(12명, 46.1%)				
1	5	5	7	내가 흠스를 들으며 월요일 저녁마다 대신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까지 들게해줘 도움준 남편에게 고맙다. 또 가족에게 (남편에게도 더 많이 적용해야 하겠다) 특히 딸내미와 10 초간 가슴을 맞대고 허그(포옹)하며 사랑/축복의 말 하면 좋아했고, 잠들시 축복기도를 하면 더 빨리 잘 잠드는 딸내미의 모습을 경험하고 보니 뿌듯했다. 우리 남편이나 딸에게도 살면서 결핍/상처/욕망의 모습으로 혹여나 변형되어가는 것에 내가 또 더 많이 민감해 져야함을 깨달은 좋은 시간이었다.
3	5	7	8	**남편과 자녀를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됨
7	9	8	10	**깊은 이해와 허용 범위를 넓혔다**
9	10	9	10	**가족들과 신앙적으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없던 남편도 성경말씀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4	5	5	9	가족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의 변화 좀 **더 포용적이고 이해적**
5	8	7	7	가정보다 교회에서의 어려움,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에서 조금은 회복되었다
8	9	9	10	**남편이 저의 신앙생활에 적극 동조**

5	7	9	10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나의 태도가 쉬어 가고 **나의 태도변화가 남편의 태도에 변화도 줌**
4	6	3	6	**각자에게 더 온유한 관계**가 된 것 같다
7	8	9	7	아직은 모르지만 **자녀와의 대화를 좀더 사랑으로 하려 노력**한다
8	10	9	4	외적인 변화는 없다
0	1	0	2	아직 큰 변화는 없다
전과 후 점수가 동일한 경우(8명, 30.8%)				
9	9	9	9	아직 특별한 변화는 체험 못함
5	5	5	5	변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7	7	7	7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됨,** **내가 건강하게 반응하니 가족들은 따라서 밝아짐**
9	9	8	7	**이해하게 됨**
9	9	9	9	**더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	2	5	3	**남편을 대하는 말과 태도: 존경과 신뢰로 대할 수 있게 됨**
7	7	9	8	전에는 나에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입장이 이해되고 그들도 아프다는 표현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내가 빨리 건강해져야 온가족이 건강해 질 수 있다 라고 바뀜
0	0	8	8	**자녀에게 저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음을 얘기**했고 자녀도 흠스 받도록 권유
전보다 후가 점수가 낮아진 경우(6명, 23.1%)				

9	8	9	10	나의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족들이 알고 **남편도 가정교육에 전보다 지원하며 사춘기 아들도 아직도 변덕스러운 감정시기이지만 엄마인 저에게 사랑을 표현을 하기 시작함**
5	4	5	4	딸이 나의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딸의 말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자 노력함**
9	8	7	7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음
10	9	8	7	**대화**
10	9	10	9	**친정 언니들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남**
6	5	7	8	배우자 – 그동안 깊이 감춰 있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더욱 혼란스럽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나의 의지로 섬기며 노력했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시며 나를 내려놓게 하신 것 같다

배우자가 있는 처음 참가자 26명 중 배우자와의 관계 10점 척도 점수에서 전보다 후 점수가 더 높아진 사람은 전체의 46.1%인 12명이였다. 전과 후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30.8%인 8명, 전보다 후가 점수가 낮아진 경우는 23.1%인 6명이였다. 앞에서 분석한 역기능 가정 vs 순기능 가정 척도의 점수변화와 상당히 비슷한 비율로 점수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가족(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의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을 더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었다는 맥락의 답이 5명 있었다. 또한 가족과의 대화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도 5명이 있었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3명이 있었다. 참여자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응답도 3명이 있었다.

가족의 변화에 대한 주관식 응답자 26명중 20명(76.9%)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표현했다. 5명(19.2%)은 변화가 없었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나머지 1명(3.8%)은 “배우자 – 그동안 깊이 감춰 있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더욱 혼란스럽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고 더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역기능 가정에 대한 인식으로 사전보다 사후점수를 낮게 표현한 참여자 들처럼 비록 지금 당장은 역기능가정에 대한 현실 인식이 더 커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불편함이 형성되는 일이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곪은 것이 터지고 더 건강한 관계를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이것을 후속프로그램 혹은 부모회복학교 재수강 등을 통해 올바른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족의 변화에 대한 주관식 응답 분석을 통해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76.9%의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부모회복학교가 긍정적 가족관계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처음 참가자(미혼을 제외한 27명)의 자녀와의 관계 10점 척도 변화 분석

〈표 15〉 처음 참가자의 자녀와의 관계 10점 척도 변화 분석

자녀 관계 전	자녀 관계 후	배우자 관계 전	배우자 관계 후
전보다 후가 점수가 높아진 경우(11명, 40.8%)			
5	7	1	5
7	8	3	5
8	10	7	9
9	10	9	10
5	9	4	5

9	10	8	9
9	10	5	7
9	10	9	8
7	8	6	5
3	6	4	6
0	2	0	1
전과 후 점수가 동일한 경우(8명, 29.6%)			
9	9	9	9
7	7	5	8
8	8	0	0
9	9	9	9
7	7	7	7
5	5	5	5
7	7	9	8
10	10		
전보다 후가 점수가 낮아진 경우(8명, 29.6%)			
5	3	2	2
9	8	7	7
5	4	5	4
9	7	7	8
9	4	8	10
8	7	9	9
8	7	10	9
10	9	10	9

자녀가 있는 처음 참가자 27명 중 자녀와의 관계 10점 척도 점수에서 전보다 후 점수가 더 높아진 사람은 전체의 40.8%인 11명이였다. 전과 후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29.6%인 8명, 전보다 후가 점수가 낮아진 경우는 동일하게 29.6%인 8명 이였다.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부부관계 만큼이나 매우 중요하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더욱 그렇다. 그런 면에서 부모회복학교를 통하여서 10명중 4명에 해당하는 40.8%가 개선된 관계 점수를 보여준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8. 처음 참가자(29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10점 척도 및 그 이유와 변화 분석

"본인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라는 10점 척도 질문의 답변과 "이번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를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의 답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의 질문과 동일하게 10점척도를 기준으로 점수가 더 높아진 경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가 낮아진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다.

〈표 16〉 처음참가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

전	후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
전보다 후가 점수가 높아진 경우(9명, 31%)		
7	8	<u>친밀한</u> **기도**하게 하심
8	9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심에 담대해짐

7	8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5	6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그 자리에 가길 게을리함을 깨닫게 됨
3	9	감사한 마음의 회복과 찬양의 회복입니다.
9	10	**지성소**
5	6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더 속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8	관계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흠스를 하고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거라 믿는다.
7	8	삶을 살면서 이래 저래 요래 핑계 같지 않은 핑계로 말씀이나 기도에 느슨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던 듯하다. 이번부모회복학교를 통해 바로바로 내 눈으로 확실히 환경적으로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궈가고 계시는 변화가 일어남을 인정하고 느끼며,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와 문지기기도, 흠스를 통해 힘을 얻고 다시 또 새로이 주님과의 친밀함에 예민해져야 한다 회개된 시간이다. 하나님을 앞서 갈수 없듯이 난 그저 믿음과 순종으로 내게만 주어진 길을 신실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것을 이룸을 믿는다.
전과 후 점수가 동일한 경우(17명, 58.6%)		
9	9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9	9	**직면을 통한 회개와 회복의 기도**를 드림
8	8	**지성소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할 수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만 있어 울적한 맘이 있었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직면**함으로 마음에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가족들 과도 사랑의 표현이 잦아지고 사춘기아들과도 사이가 나아지고 있다
8	8	**깊은 직면을 위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기에
7	7	**막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8	8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됨
5	5	**친밀감**을 갖게 된 것
8	8	**직면**
9	9	**매일 직면**을 하게 됨으로 **하나님과 친해짐**

5	5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감
6	6	**지성소예배와 직면기도**가 조금 자연스럽게 되어 **하나님과의 <u>친밀함</u>**이 조금 생겼다.
7	7	하나님이 나를 더 만져 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심을 확인하고 **신실하심을 더욱 믿게 됨**
6	6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느낌**
4	4	내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9	9	**지성소 예배 직면 기도**를 통해 핵심감정을 다루어 주셔서 감정이 올라오게 될 때 이제는 지성소 직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10	10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척도가 나의 삶의 척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항상 <u>친밀한</u> 관계를** 갖고 계심을 인식함.
10	9	작은 생명과 영혼의 중요성을 지식적으로 더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 자신과 자녀 VS 자녀된 나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의 연관성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하는데 좀더 세밀하게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보다 후가 점수가 낮아진 경우(3명, 10.4%)		
10	9	투사처럼 열매(문제해결)를 급하게 따고 싶은 자세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평안과 감사의 자세로.. 이유는 완전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음으로
10	9	오직 감사
9	8	하나님의 사랑 깨달음

처음 참가자 29명 중 하나님과의 관계 10점 척도 점수에서 전보다 후 점수가 더 높아진 사람은 전체의 31%인 9명이였다. 전과 후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58.6%인 17명, 전보다 후가 점수가 낮아진 경우는 10.4%인 3명이였다.

점수적으로는 이전과 이후가 동일한 사람이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다.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한사람을 제외한 세가지 경우의 참가자 전원(28명)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표현했다.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으며(6명), 하나님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과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여러

명이 답했다. 또한 지성소예배와 직면기도를 통한 은혜를 표현한 사람이 많았다.(9명)

전체적으로 10점 척도로서의 점수의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주관식 답변을 통해 거의 모두에게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처음 참가자(29명)의 마음의 상처 10점 척도 및 그 이유와 변화 분석

"본인은 현재 마음의 상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처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라는 10 점 척도 질문의 답변과 "이번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상처 정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를 적어 주세요."라는 질문의 답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0 점척도를 기준으로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가 더 낮아진 경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가 높아진 경우를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다.

〈표 17〉 처음 참가자의 [마음의 상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

전	후	[마음의 상처]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
전보다 후가 점수가 낮아진 경우(18명, 62.1%) – 점수가 낮을수록 상처가 적음		
5	2	나의 회개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
10	7	**상처를 직면**하고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8	3	상처는 그대로 존재하나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9	7	마음상태 내놓으니 말씀으로 **치유하며 회복을 하게 하심**
7	5	잊고 있던 **상처가 기억났지만 회복됨**
7	3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됨
5	1	살아오면서 내게 상처를 가했던 사람들을 또 내가 스스로 결정과 행함에 생긴 상처나 욕망들을 나름대로 다 나열하며 내려놓고 퍼붓고 나니, **내 맘이 확실히 맘이 부드러워**

		졌음을 느낀다.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많이 굳었었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내 모습을 많이 들여다보고 회개가 된 시간이었다.
8	7	주님의 따뜻한 이해와 위로 때문. **상처가 건드려져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
2	1	**핵심감정을 다룸 받았기에** 감정에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6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강한 자녀이며 빼앗겼던 모든 것을 칠배나 받을 것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며 걸음마를 할 것입니다. 도피하지 않을 것 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아픔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저는 주님께 감사의 눈물만 났습니다.
7	6	**점진적인 상처치유**
3	2	**깊은 숨은 동기 발견 회개**
4	3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외로움으로 부터 해방**
10	8	**직면기도과 연합**
6	3	숨어있던 상처가 불편하지만 거부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며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6	5	**같은 상황에서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짐** (전에는 분노로 반응 지금은 이해하고 넘어감)
9	5	솔직히 기대한 만큼의 변화는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6	4	**직면하고 토설하고 인정함으로 치유가 일어남 / 일상에 많은 회복**이 증거다
전과 후 점수가 동일한 경우(6명, 20.7%)		
2	2	**회복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남겨 두었던 미비한 상처까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긍휼의 마음이 더욱 크다
1	1	아직 나의 상처를 깨닫지 못했지만 계속 직면을 통해서 깨달아 가기를 사모하고 있음
8	8	**미움이 줄었다.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10	10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됨**
2	2	**토설기도**
1	1	없었습니다. 이미 흠스와 비슷한 다른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보다 후가 점수가 높아진 경우(5명, 17.2%)		

2	4	**어릴 때에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된 줄 알았는데** 화가 나거나 불편해지면 자녀들을 존중하여 대하지 못했던 것 같고 내가 회복되는 것이 곧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3	5	인생에 큰 상처는 없었지만 부모회복학교 기간 동안에 **잔잔한 상처들이 떠오르며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	5	**그게 상처인 줄 인식하지 못 했는데.. 상처를 준 그분을 용서해야 겠다.**
7	8	다림줄강의를 통해 수동성 다림줄에 나오는 **부정적 감정에 다 해당 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핵심감정을 찾음**
5	8	매사에 감사

처음 참가자 29명 중 마음의 상처 10점 척도 점수(점수가 낮을수록 상처가 적음)에서 전보다 후 점수가 낮아진 사람은 전체의 62.1%인 18명이였다. 전과 후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20.7%인 6명, 전보다 후가 점수가 높아진 경우는 17.2%인 5명이였다. 부모회복학교가 상처회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T-검정으로도 검증되었지만 62.1%의 참여자가 사전보다 사후에 상처의 정도를 말해주는 척도 점수가 줄어든 것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효과는 상처로부터의 회복에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이전과 이후가 점수가 동일한 6명중 4명도 주관식 답변을 통해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 "미움이 줄었다." 등 마음의 상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표현했다. 6명중 4명을 상처가 줄어들었음을 점수와 주관식 답변으로 표현한 18명의 경우와 합하면 총 22명으로, 75.8%의 참여자에게 상처 회복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은 전보다 이후가 점수가 높아진(상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5명의 주관식 답변이다. 5명중 4명이 "상처들이 떠오르며", 부정적 감정에 다 해당 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핵심감정을 찾음", "그게 상처인 줄 인식하지 못 했는데.." 등 상처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상처를 인식하게 되거나, 잊었던 상처가 떠오르거나, 상처에 해당되는 부정적감정과

핵심감정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다. 사실 그래서 부모회복학교 이전보다 이후에 상처의 정도에 대한 점수가 높아졌지만 이 상처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중 한명은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며 이미 치유의 경험을 말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이 혹 이번 부모회복학교를 통하여서 상처 인식 까지만 가고 치유와 회복까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처치유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후속 프로그램 혹은 부모회복학교의 재수강 등을 통해 이렇게 인식된 상처가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자 담당 사역자가 가져야할 방향이라고 하겠다.

10. 처음 참가자(29명)의 부모회복학교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과 그 이유 분석

부모회복학교의 사후 설문에서는 부모회복학교 마친 후 종합적인 평가질문을 실시했다. 그 중 첫번째 두가지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1. "부모회복학교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을 꼽는다면?"
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② 강의 ③ 직면 기도 ④ 기타( )

1-2.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석해 보았다.

〈표 18〉 처음 참가자의 부모회복학교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과 그 이유 분석

가장 유익했던 부분	이유
1.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13명, 44.8%)	전에 일지 못했던 기도여서
	내 환경, 감정상태, 문제들로 인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웠는데 지성소예배를 통하는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
	회개없이 구하던,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내게 지성소 예배는 정결하기 위한 준비와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도를 통해 나의 완악함을 주님께 모두 드러내는 연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1:1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로 인해 더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직면기도를 통해 회복을 경험해서
	지성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 짐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지성소 기도를 지성소 예배라 부르는 특이함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임을 확인하며 **자녀됨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
	직면기도
	그 시간에 제일 많이 나를 만져 주셨다
	지성소 예배가 많은 회복을 줌
	평소 때 **혼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려 가는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응답으로 받음
2. 강의 (4명, 13.8%)	평소 지성소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토설하고 회복이 되었던 것들에 강의를 통하여 지식의 이해가 언어로 표현되면서 감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처음 접하는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 맘의 상처 깨달음
	강의를 통해 감정을 알게 됨

3. 직면 기도 (10명, 34.5%)	이론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직면을 할 수 있었다
	그동안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서 직면하는 기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진정한 기도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상담치유는 불완전하면서도 인간상담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하는데 **직면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하고도 비밀스런 장소로 완전한 의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
	하나님과의 만남
	횟수가 늘어남
	직면기도라는 부분을 배우게 됨
	직면기도야 말로 회복에 가장 중요함
	상처회복을 위한 기도는 처음이었다
	1대1 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대된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직면기도. 강의 세부분 다 (2명, 6.9%)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였어서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참가자 29명 중 첫번째로 많이 꼽힌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였다. 전체의 44.8%인 13명이였다. 두번째로 많이 꼽힌 것은 “직면기도”였다. 전체의 34.5%인 10명이였다. 세번째로 꼽힌 것은 “강의”였다. 전체의 13.8%인 4명이였다. 6.9%에 해당하는 나머지 두 명은 기타 응답 란을 활용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직면기도, 강의 세 부분 모두 좋았다고 적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가장 좋았다고 꼽았던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일대일의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꼽았고, 회복을 경험해서 라는 이유를 답한 응답자도 여럿 있었다.

"직면기도"를 가장 좋았다고 꼽았던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직면기도를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는 점과 이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직면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응답 중 "상처회복을 위한 기도는 처음이었다"는 응답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상처회복을 돕는 기도와 사역의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응답 이였다.

이질문과 답변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강의"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직면기도"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두 답을 합쳐서 거의 80%에 해당하는 79.3% 총 23명이였다. 이 분석을 통해 회복사역 가운데 강의 이상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회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회복, 치유사역 가운데 강사의 강의 중심의 사역이나, 예배와 기도가 배제된 나눔 중심의 사역에 대해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11. 처음 참가자(29명)의 부모회복학교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와 그 이유 분석

부모회복학교 종합적인 평가질문 중 두번째는 8개의 강의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를 1개 택하고 그 이유를 적는 것이었다. 두가지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2. 8 개의 강의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는(택 1)?

제 1 강) 자녀를 살리는 부모 회복학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 2 강)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

제 3 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 4 강) 라비앵 로즈–장미빛 인생. 그러나 당신은 부재중

제 5 강) 다림줄 1 – 회복에 대한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다림줄

제 6 강) 다림줄 2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다림줄과 정체성

제 7 강) 중독 –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제 8 강) 수료식 – 그 축복의 샤워가 내리던 곳에서의 만남

2–2.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석해 보았다.

〈표 19〉 처음 참가자의 부모회복학교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와 그 이유 분석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	이유
제1강) 자녀를 살리는 부모 회복학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2명, 6.9%)	**직면과 지성소 예배의 필요성을 깨달음**
	부모의 역할로 인하여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 보내느냐 상처를 흘려 보내느냐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2강)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 (3명, 10.4%)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은혜의 하나님을 더 알게 됨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느낌. 눈물이 많이 났다
제3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7명, 24.1%)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중독이나 상처에서 일어설 용기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져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다른 점을 알았다**
	강의를 통해 내 안에 상처를 발견함

	내 아버지의 신앙을 재 점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시간이 좋았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무겁고 어두워서 저는 솔직히 힘들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제4강) 라비앵 로즈–장미빛 인생. 그러나 당신은 부재중 (2명, 6.9%)	관계에 집중하던 그곳의 나는 정작 껍데기임을 느낌
	주인공의 모습이 일부분 나와 비슷
제5강) 다림줄 1 – 회복에 대한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다림줄 **(7명, 24.1%)**	**하나님이 내리신 다림줄로 잘못 쌓았던 벽돌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와 **다림줄을 내려 주신 주님의 자비는 회복의 시작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림줄에 대해 처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나의 삐뚤어진 다림줄을 인식하게 됨
	제 상처를 보게 됨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다림줄을 통해 잘 학습할 수 있었다
제6강) 다림줄 2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다림줄과 정체성 (3명, 10.4%)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엄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격려하게 하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데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 부분 강의를 통하여 각가정과 성향과 기질과 반응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의 또 하나의 추가적인 기반이 되었다.
	다림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 안의 **상처와 핵심감정을 보게 됨**
제7강) 중독 –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5명, 17.2%)**	8 주간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부분이자 숙제이자 다루기 힘든 영역이란 걸 알고, **이상하게도 가장 직면기도를 제일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하게 된 시간이었다.** 내게도 예수님을 믿고 알기까지 저런 **중독자의 모습이 있음을 보았고**, 가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전쟁을 치루는 영역이며, 많은 여러 모습이 있지만, 우리 한국/미국사회에서 흔한 **관계/의존 중독**이나 가정/성폭력 등의 위기 등으로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어쩜 우리 스스로 아닌 듯 부정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너무 모르면서 살아가는 세대와 세상에 더 알게 하려하시는 기회가 되는 듯하다. 오 주여 힘주소서

	평소인식하고 있던 중독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운동이나 여행처럼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도 묶이는 관계가 되면 중독이 된다는 것 중독은 뇌가 죽으며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것 특히 종교중독과 사람중독은 평소인식 못했던 지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드러나는 것만 중독인 줄 알았다
	회복되길 원하니까
	나는 중독에 빠진 줄도 몰랐는데 알게 되었고 어릴 때 사랑의 결핍이 중독으로 가게 되고 상처가 중독으로 가게 되는 것임을 알았기에 다음세대는 (나의 후손은) 이런 대물림이 가지 않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제 8 강) 수료식 – 그 축복의 샤워가 내리던 곳에서의 만남 (0명, 0%)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를 묻는 질문에 "제3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제5강 다림줄 1 – 회복에 대한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다림줄"을 꼽은 사람이 각각 7명(24.1%), 7명(24.1%)으로 동일하게 제일 많았다. 그 다음 많이 꼽힌 강의는 "제7강 중독 –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로 5명(17.2%) 이였다. 이어서 "제2강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3명(10.4%), "제6강) 다림줄 2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다림줄과 정체성"이 3명(10.4%) 이였다. 그리고 "제1강 자녀를 살리는 부모 회복학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를 꼽은 사람이 2명(6.9%)이였고, 동일하게 "제4강 라비앵 로즈–장미빛 인생. 그러나 당신은 부재중"을 꼽은 사람이 2명(6.9%)였다. 제 8강 수료식 수료식 –그 축복의 샤워가 내리던 곳에서의 만남"을 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개별 강의별 순위로는 위와 같지만 제 5강 다림줄 1, 제6강 다림줄2는 시리즈 강의로 단일

주제로 보자면 다림줄 강의가 두 강의 합쳐서 10명 34.5%로 가장 많이 도움을 많이 준 강의로 꼽혔다. 이렇게 답한 이유를 말하는 주관식 답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인 다림줄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준점인 다림줄이 상처 등으로 비뚤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며, 이로 인해 잘못 쌓게 되는 부정적인 성품의 벽돌 문제를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유익한 강의로 꼽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강의를 통해 자신의 비뚤어진 다림줄과 상처와 핵심감정을 보게 되었다는 답변도 3명이 있었다.

주제별로 봤을 때 두번째로 많이 도움이 된 강의로 꼽힌 강의는 "제3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였다.(7명, 24.1%) 그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2명)라는 답변과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점을 알았다(1명)라는 답변, 내아버지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다(1명)라는 답변, 강의를 통해 내 안의 상처를 발견했다(1명)라는 답변이 있었다. 특별히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고,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많았던 한국인 가정에서 자란 이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는 것과 이를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주제강의가 두번째로 많이 도움이 된 강의 주제로 꼽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 다음으로 많이 도움이 된 강의로 꼽힌 "제 7강 중독" 강의는 이 시대에 중독문제가 큰 만큼 많이 꼽힌 것으로 보인다. 주관식 답변을 통해서 그 이유로 자신의 중독을 알게 되었다는 답변(2명)과 관계 중독 등 구체적인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답변(3명)도 있었다. 사랑의 결핍과 상처가 중독의 원인이 됨을 알게 되었다는 답변(1명)도 있었다.

눈에 띄는 강의에 대한 주관식 답변 중 하나는 "뒤로 갈수록 내용이 무겁고 어두워서 저는 솔직히 힘들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였다. 부모회복학교의 강의들을 통해 상처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게 하는 강의들이 이 참여자처럼 힘들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강의로만 끝나지 않고 강의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직면그룹시간이나 하나님과의 일대일 직면기도시간에 강의 때 힘들게 다가오거나, 인식된 상처들을 하나님께 직면기도 등으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자 및 그룹 리더가 잘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12. 처음 참가자(29명)의 부모회복학교를 통한 자신의 변화 답변 분석

"이번 부모회복학교(HMMS)를 통한 자신의 변화를 적어 주세요." 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해 보았다. 주관식 답변이기에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지만 답변의 핵심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표 20〉 처음 참가자의 부모회복학교를 통한 자신의 변화 답변 분석

직면기도 (감정,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게 됨)와 지성소예배를 드리게 됨 (11명, 37.9%)	**직면 기도**를 통해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져 갈 수 있게 됨
	직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어두움, 아픔/상처/욕망들을 이제는 더 솔직히 얘기하고 주님 앞에 내 놓고 토하듯 말하는 것에 부담되지 않고**, 듣는 것에도 민감해야 함을 느끼고, 우리의 핵심감정과 다른 감정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휘두를 수 있는지 더 알게 됨에 감사하다. **눈물과 찐콧물을 쏟았던 기도를 정말 오래간만에 하고 나니 예수님의 생명력, 성령님으로 채워져 살아가야함을 더 느끼고 깨달아 더 건강히 회복되어야 하겠다**
	지성소, 직면기도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말씀을 더 체험하고 컨펌 받게 됨
	지성소 예배를 혼자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매일 직면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체되는 과정이 시작됨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감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동생들과 **매일 아침 지성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음**
	제 맘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 성품을 갖도록 기대 하는 것
	직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복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를 매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마음의 변화 (5명, 17.2%)	**회복**의 확신을 갖게 됨으로, 누리게 되는 **평안과 감사**
	마음의 여유와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다
	매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
	회복된 감사가 감사합니다
이웃, 가족 등과의 관계 및 관점 변화 및 용서 (5명, 17.2%)	**이웃과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인식하며 내 자신의 회복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음**
	아버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부모님의 삶과 같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조금 자유해지고 **남편을 보는 관점이 달라짐**
	초등학교 선생님을 용서하였고 그로 인해 생긴 율법주의적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체되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에 대한 결단 (4명, 13.8%)	살아온 날들과 나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늘 새기고 살아야 함을 다시 재인식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생명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아직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함이 나의 가장 약점인데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느 날엔 열매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변화됨**
하나님에 대한 인식 변화 (2명, 6.9%)	나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따뜻함을 느꼈다**
	하나님이 더욱 나와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기쁘다. 기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상처를 그대로 인정 (1명, 3.5%)	내 상처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리더로부터의 도전과 배움 (1명, 3.5%)	조희창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과 이끄심을 보고 배우고 영혼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갖추어야 할 온유하고 긍정적인 표현과 격려가 배워야 할 부분으로 많은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부모회복학교를 통한 자신의 변화에 대한 답변에서 "직면기도 (감정,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게 됨)와 지성소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라는 답변이 11명, 37.9%로 가장 많았다. 부모회복학교의 목표 중 하나가 기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혼자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직면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순간 순간 만들어지는 상처와 감정의 문제를 잘 다루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이 시간들의 지속을 통해 혹 아직 다 치료되지 못한 기존의 상처 또한 치료되어 갈 것이다. 이어서 회복과 마음의 변화를 표현한 사람이 5명으로 17.2% 였다. 그리고 이웃, 가족 등과의 관계 및 관점이 변화되고, 용서되었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5명으로 17.2% 였다.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에 대한 결단이 4명으로 13.8% 였으며, 하나님의 시선이 따뜻함을 느꼈다 등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변화가 2명으로 6.9% 였다. 그 외 상처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다와 부모회복학교 리더로부터 도전과 배움을 가졌다는 응답이 각각 1명(3.5%)씩 이였다.

13. 처음 참가자(29명)의 부모회복학교 종합평가 답변 분석

부모회복학교 종합적인 평가질문 중 마지막은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이번 부모회복학교(HMMS)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① 매우 안 좋았다 ② 안 좋았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았다 ⑤ 매우 좋았다.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석해 보았다.

〈표 21〉 처음 참가자의 부모회복학교 종합평가 답변 분석

종합평가	이유
5. 매주 좋았다 (14명, 48.3%)	**항상 갖고 있던 근본적 질문에 답을 얻게 됨**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음
	그때 왜 이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았기에
	새로운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음
	나를 알게 되는 부분 ,가족을 알게 되는 부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식 하는 부분이 달라진 것
	내 마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어서
	회복을 경험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이들이 집에만 있어 온종일 같이 있으면서 소통에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이 온 것에 대해 내 자신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흠스를 통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회복과 치료가 되는 강의였음**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가장 필요한 값진 과정이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 분과 더욱 친밀해진 시간**이였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를 인식하고 있는
	모든 답이 설명하는 듯합니다
	영적으로 강의에 대한 내용의 기대가 컸다
4. 좋았다	나와 이웃과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명, 48.3%)	**내 삶의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은혜로웠습니다**
	상처와 회복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깊이 있는 기도로 인도하는 예배방법
	은혜가 있었기 때문
	좋았기 때문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해 줌
	직면기도의 힘
	지성소 예배, 직면기도, 회복에의 확신, 간호사의 월권행위 신선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처음이라 아직 직면기도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내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내 자아가 죽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를 더 알게 됐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데 회복과 치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
	집에서 함에 집중하기에 아쉬움이 있어서
	흠스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현장감이 없어서 완전 몰입은 못했지만 알게 되고 인식하였으니 회복의 기회는 계속 있을 것이기에 감사했다
3. 보통이다 (1명, 3.4%)	뒤로 갈수록 어두운 내용이라 힘들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2. 안 좋았다 (0명, 0%)	
1. 매우 안 좋았다 (0명, 0%)	

"매우 좋았다"로 답한 사람이 14명 48.3%, "좋았다"로 답한 사람이 14명 48.3%로 동일했다. 보통이다가 1명으로 3.4%였으며 안 좋았다, 매우 안 좋았다는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다. "매우

좋았다"와 "좋았다"로 응답한 사람이 29명중 28명으로 96.6% 였다. 부모회복학교에 대한 긍정평가가 96.6%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매우 좋았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답했다. 그중 네명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음", "항상 갖고 있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게 되었다" 등 문제의 원인 등을 알고 해답을 얻게 되었다 라고 답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답변으로 많은 이들이 상처, 정체성 고민 등으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회복학교가 그 해답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매주 좋았다"라고 답한 응답자중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응답도 네명이 있었다. 또한 많은 은혜를 체험으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친밀해 졌다는 답들도 있었다.

"좋았다"라고 답한 참여자들의 이유에 대한 응답도 "매우 좋았다" 라고 응답한 참여자들과 비슷한 흐름의 응답이 많았다. "좋았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 세명은 "집에서 함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등 집에서 화상앱 줌(Zoom)으로 참여하기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을 표현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팬데믹 이후에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4. 처음 참가자(29명) 사전, 사후 점수와 두 번 이상(복수) 참가자(23명)의 사전, 사후 점수 비교

마지막으로 분석해 볼 것은 처음 참가자(29명) 사전, 사후 점수와 두 번 이상 참가자(23명)의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동일인을 대상으로 처음 참가 전후, 두 번 이상 참여 전후를 비교한

것이 아니기에 한계점이 있지만 처음참석과 복수참석의 차이와 변화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표 22〉 처음 참가자의 사전, 사후 점수와 두 번 이상(복수) 참가자의 사전, 사후 점수 비교

측정도구	처음참가자 사전(1)	처음참가자 사후(2)	1,2 차이	1,2 차이 %	복수참가자 사전(3)	복수참가자 사후(4)	3,4 차이	3,4 차이 %
	M(평균)	M(평균)			M(평균)	M(평균)		
가족건강성	**78.24**	**79.93**	1.69	1.53%	**81.96**	**86.00**	4.04	3.68%
신앙적 가족건강성	**38.86**	**40.97**	2.10	3.50%	**41.87**	**43.70**	1.82	3.04%
정서적 건강	**71.69**	**73.24**	1.55	1.62%	**74.91**	**75.87**	0.96	1.00%
영적 성숙도	115.62	117.31	1.69	1.28%	114.91	117.70	2.78	2.11%
현재 본인의 역/순기능 가정 (10 점 척도)	**5.79**	**6.17**	0.38	3.79%	**6.35**	**6.57**	0.21	2.17%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10 점 척도)	**5.85**	**6.44**	0.59	5.92%	**7.25**	**7.70**	0.45	4.5%
현재 자녀와의 관계(10 점 척도)	7.26	7.44	0.19	1.85%	7.27	7.68	0.41	4.09%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10 점 척도)	**7.41**	**7.76**	0.34	3.45%	**7.87**	**8.35**	0.48	4.78%
현재 마음의 상처(10 점 척도, 상처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5.66	4.55	−1.10	−11.03%	4.87	4.43	−043	−4.30%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9개의 측정 도구 중 6개의 측정도구(가족건강성, 신앙적 가족 건강성, 정서적 건강, 역/순기능 가정 10점 척도, 배우자와의 관계 10점 척도, 하나님과의 관계 10점 척도)에서 처음 참가자 사전 점수(1)보다 사후점수(2)가 더 높았으며, 처음 참가자의

사후점수(2)보다 복수 참가자의 사전 점수(3)가 더 높았으며, 복수 참가자의 사후 점수(4)는 복수 참가자의 사전점수(3)보다 높았다. 이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처음 참가자 사전점수, 사후점수, 복수 참가자 사전점수, 사후점수 비교

가족건강성, 신앙적 가족 건강성, 정서적 건강, 역/순기능 가정 10점 척도, 배우자와의 관계 10점 척도, 하나님과의 관계 10점 척도
처음 참가자 사전점수(1) 〈 처음 참가자 사후점수(2) 〈 복수 참가자 사전점수(3) 〈 복수 참가자 사후점수(4)

이를 통해 부모회복학교를 참여할수록 더 좋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위 6개의 측정도구의 흐름과 완전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흐름을 현재 마음의 상처에 대한 10점척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마음의 상처에 대한 10점 척도(낮을수록 상처가 적음)에서도 처음참가자의 사전 점수(1) 5.66보다 복수 참가자의 사전 점수(3)가 4.87로 더 낮았다. 이미 복수참가자는 부모회복학교에 참석했기에 상처가 어느정도 회복되어서 처음 참가자 보다 사전점수가 낮게(상처가 더 작게) 출발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후 결과도 처음 참가자의 사후점수(3) 4.55 보다 복수 참가자의 사후(4) 점수 4.43이 더 낮아서 복수참가자의 상처가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회복학교를 복수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좋은 변화가 있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B. 논의

이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처음 참가자의 사전-사후 T 검정 결과를 통해서 "연구과제 1: 부모회복학교(HMMS)가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10점 척도를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5.92%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과제 2: 부모회복학교(HMMS)가 개인의 상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는가?"에서는 상처회복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10점 척도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11.03%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 이상 참가자의 사전-사후 T 검정 결과를 통해서는 "연구과제 1: 부모회복학교(HMMS)가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 에서 가족 건강성 척도를 통해서 역기능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처음 참가자 29명의 9가지 측정도구(가족건강성, 신앙적 가족 건강성, 정서적 건강, 영적 성숙도, 역/순기능 가정 10점 척도, 배우자와의 관계 10점 척도, 자녀와의 관계 10점 척도, 하나님과의 관계 10점 척도, 마음의 상처 10점 척도)의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9개 모두에서 사전보다 사후가 더 좋아졌다. 두 번 이상 참가자 23명의 9가지 측정도구(가족건강성, 신앙적 가족 건강성, 정서적 건강, 영적 성숙도, 역/순기능 가정 10점 척도, 배우자와의 관계 10점 척도, 자녀와의 관계 10점 척도, 하나님과의 관계 10점 척도, 마음의 상처 10점 척도)의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9개 모두에서 사전보다 사후가 더 좋아졌다. 이를 통해 T-검정을 통한 통계적 유의미를 제외하고 보자면 모든 분야에서 개선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전, 사후 평균점수의 단순

비교를 통해서는 연구과제 1,2 모두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점 척도 및 그 이유 분석 및 종합 평가 분석 등을 통하여서도 연구과제 1,2에 대한 검증 및 여러 중요한 통찰들을 가질 수 있었다.

첫째, 가족의 변화(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주관식 응답 분석을 통해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76.9%의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부모회복학교가 긍정적 가족관계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우자와의 관계 10점 척도에서 46.1%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개선된 점수결과를 보여주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10점 척도 분석에서도 10명중 4명에 해당하는 40.8%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개선된 관계 점수를 보여주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10점 척도로서의 점수의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주관식 답변을 통해 거의 모두에게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역기능 순기능 가정 10점 척도와 마음의 상처 10점 척도에서 전보다 후의 점수가 더 나빠진 사례를 통하여서 비록 점수가 사후가 더 나빠졌지만 부모회복학교가 역기능 가정 인식과 상처를 인식하게 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역기능 순기능 가정 10점 척도와 마음의 상처 10점 척도 척도에서 전보다 후가 점수가 나빠진 사례가 8명(27.6%), 5명(17.2%)이 각각 있었다. 부모회복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가정이 더 역기능화 되었다거나 상처가 더 많아졌다기 보다는 학교를 통해 역기능가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더 가지게 되고, 상처를 더 인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후에 더 나빠진(역기능가정, 상처가 많음) 방향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비록 가정이 순기능가정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정의 역기능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또한 상처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순기능 가정으로 나아가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서 이 학교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상처 10점 척도 및 그 이유와 변화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5명중 4명이 “상처들이 떠오르며”, “부정적 감정에 다 해당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핵심감정을 찾음”, “그게 상처인 줄 인식하지 못 했는데.” 등 상처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상처를 인식하게 되거나, 잊었던 상처가 떠오르거나, 상처에 해당되는 부정적감정과 핵심감정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답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후속 프로그램 혹은 부모회복학교의 재수강 등을 통해 이렇게 인식된 가정의 역기능성과 상처가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또 하나 이들을 통해 사후 평가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 상대적으로 덜 높아져서 역기능 순기능 척도 점수에서 T-검정으로 확인될 만큼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검정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순기능 가정으로의 변화에 부모회복학교가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회복학교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을 꼽는 종합 평가 질문에서 “강의”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직면기도”을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직면기도” 두 답을 합쳐서 거의 80%에 해당하는 79.3% 총 23명이였다. 이 분석을 통해 회복사역 가운데 강의 이상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회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회복, 치유사역 가운데 강사의 강의 중심의 사역이나, 예배와 기도가 배제된 나눔 중심의 사역에 대해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다섯째, 5점 척도로서 부모회복학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질문에서 “매우 좋았다”와

“좋았다”로 응답한 사람이 29명중 28명으로 96.6% 였다. “안 좋았다”, “매우 안 좋았다”라는 부정평가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다. 특별히 “매우 좋았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들 중 네 명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음”, “항상 갖고 있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얻게 되었다” 등 문제의 원인 등을 알고 해답을 얻게 되었다 라고 답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답변으로 삶의 근본적이고, 깊은 문제에 부모회복학교가 그 해답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처음 참가자(29명) 사전, 사후 점수와 두 번 이상(복수) 참가자(23명)의 사전, 사후 점수의 종합 비교를 통해 처음 참가자와 복수참가자의 차이와 반복할수록 가지게 되는 효과를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6개의 측정도구에서 처음 참가자의 사전(1), 사후(2), 두 번 이상참여자의 사전(3), 사후(4) 점수에서 뒤로 갈수록(1〈2〈3〈4)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부모회복학교를 복수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좋은 변화가 있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C. 연구의 제한점

첫째, 이번 논문의 설문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부모회복학교의 효과만 연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의 효과까지 측정할 수는 없었다.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사역이 진행되게 되면 추가로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 이번 연구에 부모회복학교에 처음 참여자 29명, 두 번 이상 참여자 23명이 참여했다.

연구 참여자가 더 많았더라면 더 명확한 효과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논문에는 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번에 만들어진 9가지 측정도구들과 설문지를 통해 더 많은 참여자의 사전, 사후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D. 추후 연구과제

첫째, 부모회복학교(HMMS)와 동일한 커리큘럼과 구성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회복학교(KIDZ HMMS)와 청소년을 위한 틴즈회복학교(TEENZ HMMS)가 있다. 이미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 만들어져서 한국 외에도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사역현장에서 회복사역은 어릴 때 할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린이와 틴즈 회복학교에 대한 효과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후 연구에서 이들을 위한 회복학교에 대한 효과연구를 펼쳐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나이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교회 및 선교단체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역 혹은 성경공부 등이 먼저 이루어지거나 병행되었을 때 회복사역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을 경험했다. 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하나님 이시기에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공부는 분명 회복과 회복사역에 더 효과를 줄 것으로 이해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변수을 넣어서 실제로 그러한지를 성경공부 미경험자와 비교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부모회복학교(HMMS)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직면 기도를 핵심 기반으로 한 회복사역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본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 로라베이커가 쓴

12주과정의 상담형 성경공부 교재인 "프라소(Prasso)" 과정을 부모회복학교(HMMS) 이후 혹은 이전 프로그램으로 사용했을 때 회복의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부모회복학교와 이 과정을 이어서 함께할 때 많은 시너지와 회복효과가 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앞에 전제한 다른 성경공부 과정의 경험 유무를 변인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까지 이수했을 때 얼마나 회복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추가로 연구해 보고싶다. 특별히 "프라소" 과정은 12과 모두 각자가 집에서 먼저 성경말씀을 많이 찾고 적으며, 교재의 흐름에 따라 미리 묵상하고, 자신의 삶과 상처 등에 말씀을 적용(Process)해 본 이후에 프라소 성경공부 모임에서 나눔형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별히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게 해주는 질문과 체크리스트(Checklist)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 분명 나눔형 성경공부이지만 이번 논문에서 문제제기한 것처럼 나눔형 치유, 회복사역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이 과정이 앞에 전술한 것처럼 철저하게 회복의 힘의 기반(Power Base)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말씀으로 미리 다루어진 것을 기반으로 나눔을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추후의 연구에서 다른 나눔형 회복사역과 프라소를 통한 회복사역을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 제언

논문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갈수록 역기능 가정이 많아지고, 상처가 많아 짐으로 이혼과 자살이 늘어가는 시대가운데 분명 한국교회와 이민 교회는 이를 위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교회에서 이를 잘 도울 수 있는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회복사역은 많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서 회복사역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할 각 지역교회에 부모회복학교(HMMS)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회복학교는 교회의 크기나 인원에 상관없이 도입하기 용이한 회복사역이며, 설문을 통한 통계적 분석과 구체적인 응답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사역임이 검증되었다. 부모회복학교는 역기능 가정이 순기능 가정이 되며, 상처가 회복하도록 돕는데 효과가 있는 사역이다. 각 지역 교회에서 부모회복학교(HMMS)를 잘 도입하고 활용하여 이러한 회복의 흐름과 역사를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모회복학교를 각 지역교회와 목회에 잘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목회현장에서 이 부모회복학교를 진행하고자 할 때 교회내에서 사역을 진행할 목회자 혹은 리더가 먼저 낮은울타리 한국본부(Wooltari.com)나 미국본부(Wooltarius.org)에서 현장 혹은 화상(Zoom)으로 진행하는 부모회복학교 과정에 참여해서 8 주과정을 경험해 보길 권한다. 이어서 2 시간정도의 인텐시브 리더 훈련과정을 받으면 낮은울타리의 사역자가 직접 가지 않고도 담임목회자 혹은 교회의 사역자나 평신도 리더가 교회내에서 이학교의 진행자(School Director)로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목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회복사역을 진행하기 위해 부모회복학교의 8 개 강의를 소화해서 주일예배에서 8 주간의 "회복"에 대한 설교시리즈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일예배 설교시리즈에 이어서 부모회복학교를 진행하면 설교로 동기부여 되고 도전 된 이들이

부모회복학교에 참여해서 구체적인 회복의 과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회복” 설교시리즈를 하지 않고 부모회복학교를 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1 기수가 잘 끝나면 그 가운데 세워진 이들을 다음 기수의 리더와 보조리더로 세워가며 지속적으로 2 기, 3 기를 진행하면 교회내의 회복사역으로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8 주과정의 부모회복학교를 5 주나 6 주과정으로 줄여서 진행하거나 1 박 2 일 혹은 2 박 3 일 등의 수련회 형태로 바꾸어서 진행해도 좋다. 또한 일주일간의 새벽기도 중 하루는 “회복 새벽기도”로 매주 열어서 부모회복학교에서의 지성소예배(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와 상처를 직면하는 직면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도 회복사역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정착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부모회복학교(HMMS)는 재수강 및 후속 프로그램이 이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앞의 연구과제에서도 제시한 것과 같이 “프라소” 과정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며 건강한 공동체를 가진 건강한 교회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진정한 회복은 회복사역 자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 회복사역이 건강한 교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구과제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부모회복학교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수록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교회가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회로 서 가야 한다. 또한 아픈 이들을 잘 품고 사랑으로 공동체안에서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다.

넷째, 앞의 세가지 제언을 이루어 가기 위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건강한 교회 안에서 부모회복학교와 프라소 과정 등의 후속프로그램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 가기 위한

“목회자, 사모,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회복사역 리더십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 등 해외 이민교회 가운데 회복사역 리더십 과정이 펼쳐져서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닮은 많은 회복사역을 위한 리더들이 세워지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역기능 가정과 상처가 많은 시대 가운데 교회가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한 대안이 되고, 각 교회들과 사역현장에서 회복사역을 세워가는데 이 논문이 부족하지만 쓰임 받고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부록. 사후 설문지

설문지 동의서

Project Title: **부모회복학교(Home Mission Ministry School)가 회복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가정의 순기능 가정으로의 회복과 개인의 상처 회복을 중심으로**

Investigator: Hee Chang Joh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D.Min Program)

제 연구의 목적은 부모회복학교(HMMS)가 각 성도의 가정을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시키며, 개인을 상처로부터 회복시키는지에 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습니다. 부모회복학교(HMMS) 에 참여한 사람은 본 설문지 작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하기 원치 않으면 이 설문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정보들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된 설문 내용은 연구자만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research project, please contact: Hee Chang Joh (Tel. 1-646-300-4790(US), 070-4045-0904(KOREA) / E-mail re1907@gmail.com). If you have questions about your rights as a participant, please contact the Co-Chair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David A. Currie, at: dcurrie@gordonconwell.edu; 1- 978-646-4176(US)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① 만 20-30세 ② 만 31-40세 ③ 만 41-50세 ④ 만 51-60세 ⑤ 만 61세 이상

3. 거주국가

   ① 한국 ② 미국 ③ 호주 ④ 기타

4. 결혼생활

   ① 미혼 ② 5 년 이하 ③ 6-10 년 ④ 11-20 년 ⑤ 21-30 년 ⑥ 31 년 이상 ⑦ 사별이나 이혼

5. 자녀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6. 부모(생존해 계신 부모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장인 or 시아버지 ④ 장모 or 시어머니

7. 신앙경력 ① 1-5 년 ② 6-10 년 ③ 11-20 년 ④ 21-30 년 ⑤ 31 년 이상 ⑥ 없음

8. 몇대째 신앙가정

   ① 내가 일대 ② 내가 이대(아버지 혹은 어머니 때부터)

   ③ 내가 삼대(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외할아버지 혹은 외할머니 때부터)

   ④ 내가 사대(증조할아버지 혹은 증조할머니, 증조 외할아버지 혹은 종조 외할머니 때부터) 혹은 그 이상

9. 직 분 ① 성도② 집사③ 권사④ 장로⑤ 교역자

10. 부모회복학교(HMMS) 수강 경험이 어떻게 되십니까?

    ① 이번이 처음 ② 이번이 두번째(한번 수료 했음) ③ 이번이 세번째(두번 수료 했음)

    ④ 이번이 네번째(세번 수료 했음) 이상

1. 가족건강성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우리 가족은						
1	서로 신뢰한다.	1	2	3	4	5
2	가족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있다.	1	2	3	4	5
3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한다.	1	2	3	4	5
4	삶에 대해 긍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5	먹고 살만한 수입이 있다.	1	2	3	4	5
6	서로를 존중하고 수용한다.	1	2	3	4	5
7	함께 하는 활동(외식, 여가, 취미생활 등)을 즐긴다.	1	2	3	4	5
8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1	2	3	4	5
9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1	2	3	4	5
10	전통과 문화가 있다.	1	2	3	4	5
11	자기 입장을 표현할 기회를 준다.	1	2	3	4	5
12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1	2	3	4	5
13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1	2	3	4	5
14	서로 잘 돕는다.	1	2	3	4	5
15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1	2	3	4	5
16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1	2	3	4	5

17	사회활동(봉사, 모임 등)에 참여한다.	1	2	3	4	5
18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	1	2	3	4	5
19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20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1	2	3	4	5
21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1	2	3	4	5
22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Ⅱ Korea Family Strengths Scale Ⅱ(KFSS-Ⅱ)]

2. 신앙적 가족건강성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우리 가족은						
1	서로 기도제목을 나눈다.	1	2	3	4	5
2	영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긴다.	1	2	3	4	5
3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1	2	3	4	5
4	온가족이 주일예배에 참여한다.	1	2	3	4	5
5	서로 잘 용서한다.	1	2	3	4	5
6	찬양을 함께 듣거나 부르는 시간이 있다.	1	2	3	4	5
7	식사시간에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1	2	3	4	5
8	가정의 문제해결을 기도로 한다.	1	2	3	4	5
9	가족이 함께 신앙적인 세미나, 수련회, 성경공부 등에 참여한다.	1	2	3	4	5
10	가정예배를 드린다.	1	2	3	4	5
11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1	2	3	4	5
12	가족의 의사결정을 할 때 성경중심으로 한다.	1	2	3	4	5

[조희창 2020]

3. 정서적 건강을 진단하는 척도

1-그렇지 않다　2-가끔 그렇다　3-대부분 그렇다　4-항상 그렇다

1	내면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없다 (눅19:41, 요11:33-35).	1	2	3	4
2	예수님이 나를 더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알려지지 않는 상처라든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과거를 기꺼이 들춰낼 수 있다 (롬7:21-25, 골3:5-17).	1	2	3	4
3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아를 성찰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막1:35, 눅6:12).	1	2	3	4
4	감성, 성적인 관심, 기쁨과 고통 등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다(시22, 잠5:18, 눅10:21).	1	2	3	4
5	화를 내 본 경험이 있으며 분노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줄 안다(엡 4:25-32).	1	2	3	4
6	최소한 자신과 몇몇 지인들에게는 삶의 이면에 자리 잡은 느낌, 믿음, 의심, 고통, 상처들을 숨기지 않는다(시73, 88, 렘20:7-18).	1	2	3	4
7	갈등이 생기면 거칠게 대항하거나, 상황을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달려가는 등 부모와 함께 살던 어린 시절부터 학습해온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직접적이며 정중한 방식으로 해소한다(마18:15-18).	1	2	3	4
8	가족 구성원의 죽음, 원치 않은 임신, 이혼, 약물중독, 심각한 재정파탄 등 '지각변동'에 비교할 만한 굵직한 매듭들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지만, 그런 사건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의지적으로 살고 있다(창50:20, 시51편).	1	2	3	4
9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현재의 나를 빚으셨음을 인식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창50:20, 롬8:28-30).	1	2	3	4
10	성격적인 결함, 거짓말, 말 못할 비밀들, 고통에 대처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건강하지 못한 성향 등을 포함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죄악'들이 가족사를 통하여 어떻게 나에게 전해져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출20:5).	1	2	3	4
11	꼭 누가 인정해 주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잠29:25, 갈1:10)	1	2	3	4
12	과거에 대해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을 진다(요5:5-7)	1	2	3	4
13	잘못했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마5:23-24).	1	2	3	4
14	자신의 약점과 실패, 실수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후12:7-12)	1	2	3	4
15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가가기 쉽고 온화하며 마음이 열려 있으며 가식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갈5:22-23, 고전13:1-6).	1	2	3	4
16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에게서 쉽게 화를 내지 않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마5:39-42, 고전13:5).	1	2	3	4

17	항상 귀를 열어 놓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건설적인 비평이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잠10:17, 17:10, 25:12).	1	2	3	4
18	웬만해서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마7:1-5).	1	2	3	4
19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를 잘한다"라고 말한다 (약1:19-20).	1	2	3	4
20	상실감과 실망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인정할 수 있다(시3편, 5편)	1	2	3	4
21	실망과 상실의 상황을 헤쳐 나갈 때,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가장하기보다는내자신의느낌과반응에대해살피고반성한다(삼하1:4, 17-27, 시51:1-17).	1	2	3	4
22	다윗이나(시편69편)예수님께서그러셨던것처럼(마26:38,요11:35, 12:27), 상실감으로 깊이 슬퍼한다.	1	2	3	4
23	사람들은 내가 상실과 슬픔을 삶 속에서 잘 소화,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때 나를 찾아 위로와 조언을 구한다(고후1:3-7).	1	2	3	4
24	우울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한편, 그 이면에 감춰진 원인을 찾기위해 성찰하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맡긴다(시42편, 마26:36-46).	1	2	3	4

[Peter Scazzero & Warren Bird,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두란도, 2016) 체크리스트에서 발췌]

4. 영적 성숙도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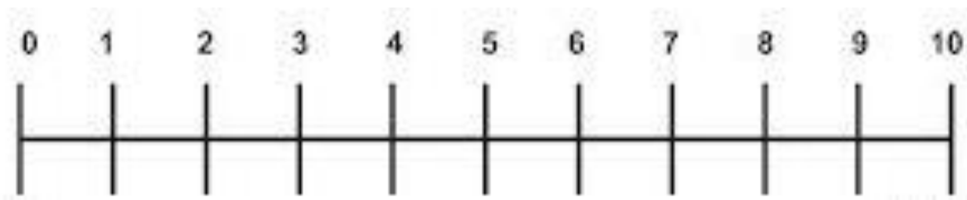
순번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1	2	3	4	5	6
2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6
3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1	2	3	4	5	6
4	봉사하는 삶을 살 때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다.	1	2	3	4	5	6
5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믿는 다.	1	2	3	4	5	6
6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끌어 내시는 분이시다.	1	2	3	4	5	6
8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려고 한다.	1	2	3	4	5	6
9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10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1	2	3	4	5	6
11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힘을 얻고 있다.	1	2	3	4	5	6
12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13	하나님과 나는 개인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4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15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다.	1	2	3	4	5	6

16	대체로 이웃들의 기쁨과 슬픔에 잘 공감하 고 표현한다.	1	2	3	4	5	6
17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6
18	내 인생에 성취감을 갖는다.	1	2	3	4	5	6
19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 하나님 이 도우심으로 회복된 적이 있다.	1	2	3	4	5	6
20	동료들이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1	2	3	4	5	6
21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	2	3	4	5	6
22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신앙은 그것을 극복하는 큰 힘이다.	1	2	3	4	5	6

5. 종합적 질문

아래 다섯 문항은 10 점 척도입니다. 0-10 점 중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점수에 체크하세요.

1. 현재 본인의 가정은 역기능 가정 vs 순기능 가정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가정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록 높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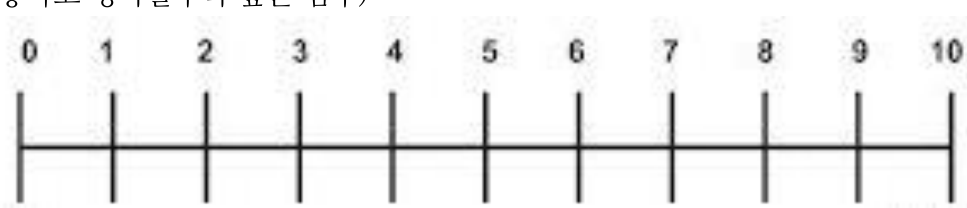


역기능 가정 보통 순기능가정

1-1. 이번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역기능가정, 순기능 가정 정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를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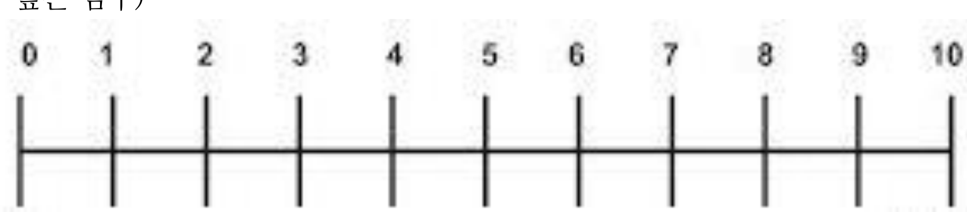
[ ]

2. (결혼했을 경우) 본인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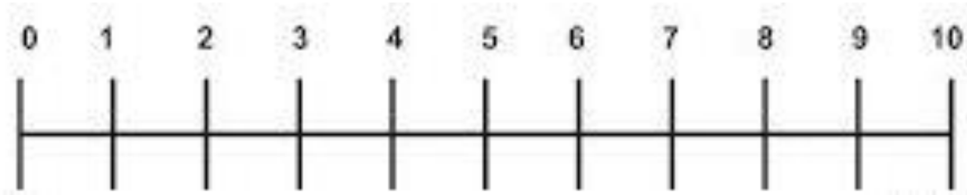
매우나쁨 보통 매우좋음

3.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은 현재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관계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매우나쁨 보통 매우좋음

4.본인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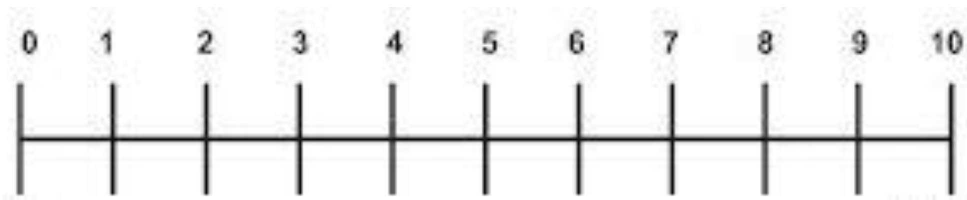


매우나쁨 보통 매우좋음

4-1. 이번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를 적어주세요.

[ ]

5. 본인은 현재 마음의 상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처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전혀없음 보통 매우많음

5-1. 이번 부모회복학교를 통해 상처 정도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변화를 적어 주세요.

[ ]

6. 부모회복학교 평가 질문

1. 부모회복학교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을 꼽는다면?

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② 강의 ③ 직면 기도 ④ 기타( )

1-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2. 8개의 강의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는(택1)?

제 1 강) 자녀를 살리는 부모 회복학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 2 강)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

제 3 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 4 강) 라비앵 로즈-장미빛 인생. 그러나 당신은 부재중

제 5 강) 다림줄 1 - 회복에 대한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다림줄

제 6 강) 다림줄 2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다림줄과 정체성

제 7 강) 중독 -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제 8 강) 수료식 - 그 축복의 샤워가 내리던 곳에서의 만남

2-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3. 이번 부모회복학교(HMMS)를 통한 자신의 변화를 적어 주세요.

[ ]

4. 이번 부모회복학교(HMMS)를 통한 가족(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의 변화를 적어 주세요.

[ ]

5. 이번 부모회복학교(HMMS)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① 매우 안 좋았다 ② 안 좋았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았다 ⑤ 매우 좋았다.

5-2.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English 영문도서]

Arthur, Kay. *Lord Heal My Hurts.* Colorado Springs : Waterbrook, 2000

Benner, David. *Healing Emotional Wounds.* Grand Rapids: Baker, 2016

Berg, Jim. *Changed into His Image : God's Plan for Transforming Your Life*. Greenville, BJU PRESS. 2018

Clark, Chap. *Hurt 2.0: Inside the World of Today's Teenager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Gary Chapman. *Five Signs of a Functional Family*, Northfield Pub. 1997

MacNutt, Francis. *Healing.* Notre Dame, Ave Maria Press, 1999

MacNutt, Francis. *The Prayer That Heals : Praying for Healing in the Family.* Notre Dame, Ave Maria Press, 2005

Paul G. Hiebert. *Transforming Worldviews: An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How People Change*. Baker Academic, 2008.

Simpson, A.B. *The Gospel of Healing.* CreateSpace, 2014

Smith, Gordon T. *Transforming Conversion: Rethinking the Language and Contours of Christian Initi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0

Peterson, Eugene H.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Discipleship in an Instant Societ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00

Peter Scazzero,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Unleash a Revolution in Your Life in Christ.* Nashville, Thomas Nelson. 2011

Peter Scazzero, *The Emotionally Healthy Church, Expanded Edition: A Strategy for Discipleship That Actually Changes Lives* Grand Rapids, Zondervan. 2010

Seamands, Dave. *Healing of Memories.* Authentic Media, 2001.

Sandra D. Wilson, *Into Abba's Arms. Finding acceptance you've always wanted.* Wheaton, Tyndale House, 1998

Willard, Dallas. *Renovation of the Heart : Putting On the Character of Christ.* Colorado Springs , NavPress, 2012

Willard, Dallas.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Understanding How God Changes Lives.* HarperOne, 1990

Wright, N.T. *After You Believe: Why Christian Character Matters.* HarperOne, 2012

[번역 도서]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12*단계와 *12*전통, 서울: 한국 A.A., 1989

Bruce Thompson, Barbara Thompson. *내 마음의 벽*, 정소영 역, 서울 : 예수전도단, 2011

Bruce Thompson. *하나님의 다림줄*, 예수전도단 역, 서울 : 예수전도단, 2002

Builders, Bridge.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찾아가는 길.*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3

Charles H. Spurgeon,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원광연 역, 서울 : CH 북스, 2009

Charles Sell. *가정사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9

David A. Seamands. *상한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서울 : 두란노, 2008

David A. Seamands and Beth Funk. *상한감정의 치유 워크북*, 김재서 역, 서울 : 예찬사, 1994

Gary Chapman. *5 가지 사랑의 언어.* 장동숙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3

Geri Scazzero.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강소희 역, 서울 : 두란노, 2016

Goldnber,Irene& Goldenberg,Herbert,*가족치료*, 장혁표,제봉석,김정택 역, 서울 : 중앙적성 출판부,1998

Larry Crabb.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이주엽 역, 서울 : 요단, 2002

Laura L. Baker. *프라소.* 서울 : 서울유에스에이, 2009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최종훈 역 서울 : 두란노, 2016

Rick Warren.*회복으로 가는 길*. 김주성 역. 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2006

Rick Warren. John Baker, *회복축제(Celebrate Recovery)*, 김주성 역. 서울 : 국제제자훈련원, 2007

Robert Hend 7th, Frank Minirth, Paul Meier, *사랑은 선택*, 예수전도단 역 서울:예수전도단, 1997

Robert E. Webber, *예배학*,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Russel Moore,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속의 가정*, 김주성 역 서울 : 두란노, 2019

Sandra D. Wilson, *상한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정동섭 역, 서울 : 두란노, 2005

Tim Keller. *기도*. 최종훈 역, 서울 : 두란노, 2015

Tim Keller. *결혼을 말하다*. 최종훈 역, 서울 : 두란노, 2014

Tim Sledge, *가족치유 마음치유*. 정동섭 역, 서울 : 요단,1996

Tom Marshall. *자유케된 자아*. 예수전도단 역, 서울 : 예수전도단, 1994

[Korea, 국문 도서]

강경호, *역기능가정의 성인아이와 상담*, 고양:한가족 가족상담연구소,2002

김경수. *성경적 내적치유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목양, 2010

노승수. *핵심감정치유*. 서울 : 세움북스, 2018

설은주, *가정사역론*. 서울:예영,1997

신상언. *상처야 잘가*. 서울 : 규장, 2013

신상언. *직면*. 서울 : 낮은울타리, 2017

신상언.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 서울 : 숲이 나무에게, 2020

신상언. *축복의 샤워*. 서울 : 낮은울타리, 2010

신상언. *HMMS 자녀를 살리는 부모회복학교 교재*. 서울 : 낮은울타리, 2017

신상언. *HMMS 자녀를 살리는 부모회복학교 리더매뉴얼*. 서울 : 낮은울타리, 2017

우광성. *이너힐링*.서울 : 나침반, 2018

이성훈, *상한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서울 : 두란노, 1994

정동섭,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서울:요단출판사 1996

최현주, *위장된 평화의 치유*, 서울: 규장,1998

크리스티김.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서울 : 규장, 2003

[Korea, 국문 논문]

김성호, 이민 가정을 위한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 : 열린문 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Fuller, 박사, 2018)

김재현, 대상관계 이론을 통한 역기능 가정의 분석 및 내적치유사례연구 (총신, 석사, 2019)

손현미,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상한 감정 치유방안 연구(상명, 석사, 2010)

양미숙, 교회내 역기능 가정의 성인아이 치유와 회복에 관한 연구(고신, 석사, 2015)

이강희, ENRICH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민가정 부부관계 성장과 갈등 해결연구(Fuller,박사,2015)

이기원, THRIVE: RELATIONAL SKILLS TRAINING PROGRAM(TRST)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자아 존중감과 영적 성숙을 중심으로-,(GCTS, 박사, 2020)

이동규, 가정을 통한 전인적인 기독교 교육 실시를 위한 사역 방안. (Fuller, 박사, 2018)

이은경, 역기능 가정의 성인아이 치유를 위한 기독교적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개발(한남, 석사, 2001)

임철민, 성경적 가정이해와 부부교육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 (Fuller, 박사, 2018)

허원,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건강한 기독교 가정 세우기: 서울 에덴교회를 중심으로 (Fuller, 박사, 2019)

Vita

HEECHANG JOH (Sep 4, 1974 Geochang. Korea)

Education

B.A,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ersity, Korea. 1998

M.A, Mass Communication/Media literacy, Sogang University. Korea. 2003
Thesis : A Study on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ternet Addiction of the Youth
- Focused on Relations to Self-esteem, Recognition on Future Career Preparation, and Club Activity

M.Div, Church Development,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USA 2011

D.Min, Ministry to Emerging Generations,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USA 2012-2022(May 2022 Graduation is anticipated)

Present Position

President of USA headquarter, Najon Wooltari Mission

Education Pastor, Han Moory Church

Professor, KPCA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NY)

Personal information

Married to Jiwon and has two daughters, Harin and Anna

Tenafly, NJ, USA

re1907@gmail.com